



1999. 여름 제2호

두입술

그대 두입술을 입이 함께 빌려라

검은 구두 한 켤레

신현림

당신은 무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의 존재를 희망의 포로라 말하겠다
일과 사랑을 찾아 다니는 구두였다고

구두 속에서 발은 여름 해같이 불타오른다
구두 속에서 삶은 언제나 실감나는 사건
구두는 전조등 불빛처럼 욕망을 비추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외출시켰다
외출은 번번이 세끼 밥을 안고 오는 일로 끝나거나
길어놓은 바닷물을 엮지르는 헛수고
불안은 구두를 자꾸 절벽으로 몰아갔다

사소한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발의 진통, 발의 발작, 발의 광기
날로 거칠어지는 내 발은 뒤틀린 기형이고
구두는 까맣게 타버린 빵임을 깨달았다

나는 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고 한낱 낙서일 뿐
그러나 모두 슬픔이 없는 상실에 이르길 원하면서
죽은 풀조차 손이 뿌리뻗어 자라길 얼마나 소원했는가

발은 수술대 위에 놓여 있다 뒤틀린 뼈는 버려지고
추억의 불가사리처럼 피로감처럼
내 발에 다시 악착같이 달라붙은 구두
지상을 더없이 사랑하게 만드는 구두
지상을 떠날 때 해를 향해 날아갈 구두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내 희망 한 켤레!!

1999. 여름 제2호

두입술

그대 두입술을 입이 함께 말하라



테마: 구두

002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미야**

| 미로에서 길찾기

- 010 일상에 관한 짧은 필름 편집위원회
- 015 구두 구애양상을 통해 살펴본 여성에 불안심리연구 **놀**
- 020 세상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발냄새 이야기 **culb**
- 028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여자 **야루**

! 구두 신기

- 032 구두 신고 뒤편 날 **프시초**
- 036 한발 한발 **240**
- 039 그래 가끔은 하이힐을 신자 **피라**



만화

- 044 이리하여 인류는... **태영**

쉬어가기

- 052 구두와 발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편집위원회

Z-file

- 058 이빨다와 3000구두 **일중**

|| 길 위에서 희망 찾기

- 066 나의 짝은 어디에... **일중**
- 068 동화 외전(外典) **태영**
- 070 질기라, 신데렐라여 **편집위원회**
- 080 길 위에서 희망을 종업거리다 **미야**

여우자리

- 084 달나라 말세로 탐방 **편집위원회**

마 실

- 088 ANTI-MISS KOREA FESTIVAL **편집위원회**

나의 세상에겐...



2호 발간 과정은 두입술이 자치 단체로 살아남기 위한 첫 시험대였다. 공간을 박탈당하고, 재정을 충당할 곳이 전무했으며, 구성원 간의 장서 공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 이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런 까닭에 기획을 바꾸기를 세 차례나 거듭해야 했고, 첫 번째 기획에선 원고가 모두 나온 상태에서 발간 중지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때론 즐거운, 때론 혼란스러운 속에서 뒤늦게 '구두'라는 테마를 결정하였다.

어쩌면 '구두'는 사소한 소재이다. 그러나 사소한 구두를 말하는 동안 그것에서 묻어나는 무수한 상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두 속에 삶이 들어있다고 말한다면 과장일까? 어하든 우리의 고민 속에서, 구두는 일상이며 단절이며 중독이며 또 꿈과 희망이기도 하다. 그래서 구두이야기는 구두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 모든 글들은 편집위원들이 직접 썼다. 우리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알인창 화자 '나'는 우리인 동시에 당선일 수 있다.

발간 과정에서 거쳤던 시행착오들은 두입술이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기획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해 줄 것이다.

- 두입술 편집위원회 편집장 **이현옥**

모집광고

"에게~ 이게 뭐야?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래? 그렇담 너도 한번 만들어 봐!"
 "에게~ 이게 뭐야?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래? 그렇담 너도 한번 만들어 봐!"
 "에게~ 이게 뭐야?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래? 그렇담 너도 한번 만들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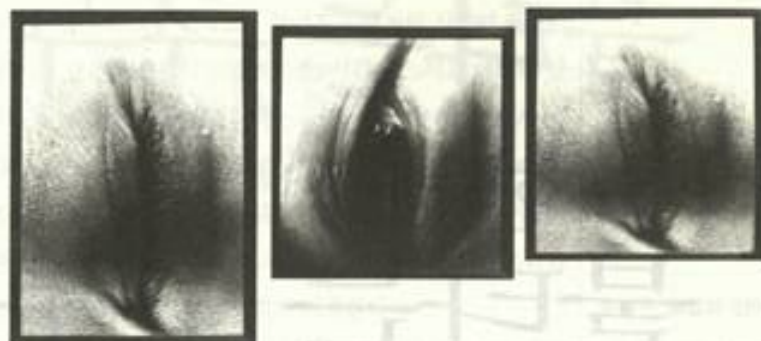
**"에게~ 이게 뭐야?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래? 그렇담 너도 한번 만들어 봐!"

그렇습니다. 한살박이 두입술은 아직 어렵니다.
그래서, 두입술을 함께 키워나갈 당신을 기다립니다.

두입술 3호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5-8606-0910(이현욱)으로 연락주세요.

연세대학교 『두입술』 편집위원회



1999. 여름 제2호

두입술

그대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라

"그대들의 입술을 열라. 그러나 그것들을
 단순히 그냥 열지는 말라. 우리, 다시 말
 해 너/나는 열려 있지도 닫혀 있지도 않다.
 우리의 입술 즉 너의 입술과 나의 입술 사이
 에서는 몇 개의 목소리들, 몇 가지의 말하는
 방식들이 이리저리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우리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밖을 향해 있
 고, 밖에 있으면서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통로. 우리들 사이의 통로는 무한하다. 끝이
 없는, 어떠한 매들도 고리도 어떠한 일도 우
 리의 소통을 멈출 수 없다. 우리들 사이에
 있는 집은 벽이 없다..."

연세대학교 『두입술』 편집위원회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 를 던져라

-마 아-

사는게 힘들고 고달프다는 말은 우리세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도 살면서 제일 참기 힘든 것은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지루함이 아닐까?

권태라는 말은 중년 남자들의 변덕스러움을 치장하는 '싫증'처럼 느껴져서 별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보다는 이 치유할 수 없는 나쁜 지루함이야말로 세상을 살기 싫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지루함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말들은 뱉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의 말을 잊지 못하고 그 말만을 되풀이하게 된다. '지루하다', '우울하다', '외롭다'와 같은 말들...

내 경우 평소엔 할 일이 많다가도 하루 저녁 술을 한 번 전당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은 오후 내내 머리 속에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고 하릴없이 살이 지루하다고 되뇌이게 된다. 살이 지루할 때는 해야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아무 것도 없거나 하기 싫은 일들만 해야 할 때이다.

지루함은 달리의 그림에 나오는 늘어진 시계처럼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는 것 같은 나른함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느끼는 예민한 감각이기도 하다.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규칙적이어서 들리지 않던 시계 소리가 갑자기 크게 귀를 울리며 시간의 흐름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일순 시계 소리는 시한폭탄의 책각거림처럼 알 수 없는 불온한 공기들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불안한 심장 소리와 박자를 맞춰 점점 더 크게 쿵쿵거리기 시작한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어서 창문을 열어! 이 불온한 공기들이 폭발할지도 몰라!

한 순간의 불안의 발작이 태풍처럼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밀려든다.

까닭 모를 슬픔과 물기 없는 매마른 울음, 차라리 울 수 있다면 이렇게 우울하지는 않을텐데. 우울은 존재의 내면으로 흘러는 침묵의 눈물이다. 울음이 살에의 본능이라면 우울함은 죽음에의 본능이다.

우울하다는 말은 주문과 같아서 우울하다고 말하는 순간 소멸과 조락,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부정적인 마이너스들을 자기 삶으로 불러들인다. 우울함은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고 금기의 위반과 일탈을 꿈꾸는 것이다.

빨간 구두

욕망은 결핍의 언어이다. 이성적 언어의 행간에 무색의 잉크로 쓰여진 암호이다. 욕망을 해독하기란, 더더구나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여성 그 자체가 욕망의 대상이거나 유혹의 기표이다. 과연 여성이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라는 유래없는 물신숭배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황금의 제물로 만들어버린 이후 여성은 포르노그래피 속의 파편화된

욕망은 결핍의 언어이다. 이성적 언어의 행간에 무색의 잉크로 쓰여진 암호이다. 욕망을 해독하기란, 더더구나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여성 그 자체가 욕망의 대상이거나 유혹의 기표이다. 과연 여성이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육체처럼 조각 조각 흩어져 있다. 여성의 욕망은 사물 속으로 은밀하게 스며들 수 밖에 없고 여성과 욕망은 동일하게 사물에 고착되어 이미지의 잔영으로 존재한다.

빨간 구두는 남루한 일상을 장미빛으로 도색하는 온폐된 욕망의 목소리로 여성들을 유혹한다.

‘자, 신어봐, 너는 멋진 춤을 추는 거야.’

춤추는 구두. 중년의 여성들이 한 번쯤은 탐냈던 저 카바레의 현란한 조명 속에서 춤추듯 흔들리는 유혹의 몸짓들.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종용하는 춤추는 구두의 유혹.

여성을 유혹하는, 이미지들이 춤추는 유리창 너머의 세계. 소원 도우 안의 박제된 행복들.

레이스 달린 원피스와 하이힐을 사는 것으로 공주가 될 수 있는 소비의 왕국.

사막의 신기루처럼 도달하는 순간 멀어지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욕망과 결핍의 우울한 변주가 울려 퍼지는 이미지의 제국에서 가상은 현실보다 더 리얼한 현실이다. 광고는 이미지를 팔고 여성은 소비를 통해서만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현실의 빨간 구두는 저 혼자 춤추지 않는다.

욕망과 현실의 끝없는 순박꼭질에 지친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욕망의 거울을 응시한다. 그 속에서는 동화 속 요술할머니가 더 이상 욕망으로 목마르지 않는 환상의 궁전으로 나를 인도한다.

유리 구두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있다. 현실의 나는 맨발이지만 거울 속의 나는 유리로 만든 구두를 신고 있다. 거울 속의 세상은 모든 것이 안개에 휩싸여 평화롭고 고요하다.

꿈의 배를 타고 망각의 강을 건너면 나르시스가 반겨주는 상상의 나라가 있다. 이 곳은 더 이상 욕망에 굶주리지 않고 누구나 나르시스의 연인이 될 수 있는 불온한 상상의 나라. 피로하고 지친 일상

의 쉼터. 현실이 망각되고 불가능한 몽상이 춤추는 유리의 성.

이 곳은 누구나 쉽게 올 수 있지만 누구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찰나의 낙원. 마법은 오래 가지 않고, 남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12시는 마법이 풀리는 시간. 이 곳의 통과료는 삶에 대한 부적응. 현실로부터 환상으로의 도피.

그러나 결코 재투성이의 현실을 그대로 순용할 수 없는 반란자의 꿈꾸기.

우리에게 꿈꿀 권리가 있고 꿈 속에선 누구도 외롭거나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아름다운 미래는 꿈꾸기 전에 오지 않는다. 현실에 순용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불평과 불만, 좌절을 증폭시켜 반란을 꿈꾸는 신데렐라는 누더기 치마 속에 유리 구두를 감추어 두어야 한다. 깨어나면 사라지는 꿈 속의 유리 구두가 아니라 현실의 유리구두들.

꿈꾸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불타는 구두

불태워라!

지루하고 따분한 세상을

일말이 일상이 되는 삶의 헛바퀴를

불태워라!

너를 옥죄고 있는 모든 억압의 사슬을

허튼 환상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모든 것을

불태워라!

너의 욕망과 너의 열정을

꿈꾸는 자의 열망으로

현실을 전복시킬 즐거운 반란을

현실에 순용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불평과 불만, 좌절을 증폭시켜 반란을 꿈꾸는 신데렐라는 누더기 치마 속에 유리 구두를 감추어 두어야 한다. 깨어나면 사라지는 꿈 속의 유리 구두가 아니라 현실의 유리구두들.



갑가라 신데렐라여, 유리 구두의 망명여,
이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불같은 열정과 광기로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노래하라.

안개처럼 자욱하게 최루탄 연기가 날리고 있다. 수많은 전경들이 교문 앞을 에워싸고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아댄다. 몇몇 격렬한 학생들은 전경들을 향해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있다.

전쟁을 방불케하는 치열한 접전이다. 한 차례의 몸싸움이 있고 시위대와 전경들이 퇴각하며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대오를 가다듬고 있다. 다시 시위대가 정문을 치고 앞으로 돌진하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시위대열 앞에서 한 여자가 전경들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다. 전경들과 시위대 사이의 대치 공간의 중간에 뛰어든 그녀는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 보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는다. 이 돌발적인 상황에 당황한 전경들과 시위대는 일순 멈칫거리며 모든 동작을 멈춘다. 시간이 정지한 것같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그 여자는 마지막 걸치고 있던 속옷까지 모두 벗어버리고는 시위대와 전경들 모두를 조용히 둘러 본다. 잠시 후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던지며 댄발로 달리기 시작한다. 그녀가 집어던진 구두가 높이 솟아올랐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진다. 당황한 전경들은 뒤로 물러서며 양갈래로 갈라 서서 그녀에게 길을 터준다.

머리를 휘날리며 전경들 사이를 뚫고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말없이 모두들 그녀가 남기고 간 옷가지와 구두를 바라보고 있다.

신현림씨의 시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의 제목을 차용하였습니다.



미로에서 길찾기

들어오기는 했는데
되돌아나가는 출구를 못 찾겠다
벽에다 몸을 들이미니
벽이 문이요
문이 벽이더라*

우리네 일상은 서글프고 우울하다
그것이 여성의 일상일 땐 더욱 서글프다
그러나 미로 속에 있을 때
그 압담함의 정서들은 잠시 미루고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것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잠시 길찾기를 예보았다

*박세현 「정선 이리랑」 지서

일상에 관한 짧은 필름

고독 구매 양상을 통해 살펴본 여성의 불안 심리 연구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발냄새 이야기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여자



일상에 관한 짧은 필름

— 편집위원회 —



1.

조그만 채구로 하나의 온전한 육체를
그 맨 아래에서 말없이 받쳐주는
구두는 일상이다.

한 번도 진지하게 반추되지 못했었던 구두는
이중적인 시선 속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나의 그림자만큼이나
무심하게 망각되는
또 다른 한편 사소하고 세밀한 신경을
언제나 그 곳에 쏟아부어야만 하는

망각 속의 집착
그것은 일상이다.



2.

아침 나절 잠깐의 시선이 주어지면 하루종일
구두 코 끝이야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든 말든
구두는 망각된다.



장해진 규율과 뻣뻣하게 들어서서
반복되는 일상의 목록표 역시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오래된 고문서마냥
언저를 뒤집어쓴 채 망각되고 있다.
일상은 스스로를 두 번씩 되돌아보게 하지 않는다.
오늘 속에서도 똑같은 어제와 내일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바깥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발짝 내디더 본 일탈의 발걸음은
그 일상에도 끼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얼른 수거된다.
저건 신포도암에 틀림없어!

3.

사이버 공간, 공주를 찾아 나서는 왕자의 길과 같이
장해져버린 삶의 각본
한 단계 한 단계 죽으면 부활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그 막연함 속에서
우리는 또 정해져 있는 희망의 각본을 소비한다.
결코 나의 것이 되지 않을 꿈꾸기.

왕자의 삶은 노력만큼의 대가가 주어질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주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숙명 속에서 산다.
성안에 갇혀 자신의 발에 꼭 맞는 구두를 들고 올
왕자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기.

여성이 살아 남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숙명의 자심영령은 다음 뿐이다.
독해지기! 수백의 탄안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 설 수 있을 때.
예뻐지기! 온몸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잘난 애인 만나기! 유능하고 잘 생기고 착한
세상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 그 남성에게 선택받기.

성공한 여성들에 대해
독해서, 예뻐서, 남자 잘 만나서라는
비아냥거림이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것 외에 실험해 본 선택지가
우리에겐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아냥거림의 내용조차 내 것이긴 힘들어
일상의 섬 없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에 중독되어 있다.



*4.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 본
중독된 일상 속은
이미 일탈로 뿔뿔히 들어차 있다
그것은 허.용.된. 일.탈.이다.

언론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것은
과포화된 일탈의 품목들이다.

치정관계, 업기적 살인, 강간폭력, 대형사고
등으로 치장된 배후에는
섹스와 죽음, 혹은 폭력이라는
사회적 금기의 위반이 지배하고 있다.
언론은 일탈을 제공하고 다시 금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시대 최대의 야누스다.

세기말적 일탈은 종종 유혹으로 다가온다.
답답한 일상에 대한
대책 없는 짜증과 분노와 저항의 힘은
원천적인 봉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탈 뒤에는
그에 대한 한치의 재고와 연민 없는
도덕적 단죄의 권력들이 있다.

이 둘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서성거리고 있지 않은가?
일탈과 도덕적 계몽의 말지 않은 간격 사이의 반복 속에서.



5.

춤춤하게 일상을 가로지르는
훈육과 주조의 권력망 속에서
돌연변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타자들.
통제되지 않음의 불안함으로
도덕주의자들의 목청 높인 개탄의 소리는
쉽게 그치지 않는다.

도덕주의자들의 '일탈' 혹은 '중독'이라는 판결문 속에는
정작 규정과 판단을 내리고 있는
자기 행위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 없이
판관으로 선 스스로의 위치를 은폐시키고 있다.
그들은 판결행위에 중독되어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탈에 대한 '규정'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일탈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금기를 통해 끊임없이 일탈을 생산하기.
일상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일탈을 통해 일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단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항
저항을 제물로 삼지 않는 단죄의 길이 있었는가?
일상은 바로 이 원한 속에 중독되어 있다.



6.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내부에도 가득해
때로 우리는 '페미니스트'라는 호명이 부담스럽다.
남성혐오적인 고집센 반항아
일탈과 위반의 선동자 정도로 표상되는 속에서
종종 그것이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들이 형벌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종종
도덕주의자들의 화생양이 되어버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원한 속에 선 스스로를 정치화하려 한다.

위반에의 주장이 아니라
어떤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
집요하게 동일성의 틀 속에서 통제하려는
그 권력에 반한 정치들!

*김진승씨의 글 '섹스, 죽음, 일탈, 예술'에서 일부를 인용하였다.



구두 구매 양상을 통해 살펴본 여성의 불안 심리 연구

—불—

1. 여성의 구두 구매 양상

구두의 구매 양상을 살펴보면, 그 선택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기제들 중 성차라는 요인을 보다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기연출의 도구로 확고하게 자리한 옷과는 다르게, 구두의 경우 필수품에서 장신구로의 이행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미의 추구에 민감해야 하는 여성들의 신발이 먼저 토달 패션이라는 명목 하에 패션의 범위로 진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자가 구두를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행위인지 모르지만 분명 그 선택과정과 쓰임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때와 장소, 의상과 연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다양한 신발을 신게 되는 여성과 달리, 일반적으로 남성은 아주 특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정장이나 세미정장, 캐주얼복, 낡은 청바지 그 어떤 옷에도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다용도의 신발을 착용하게 된다. 신발을 뒤축이 닳을 때까지 신거나 겨우 두 켤레의 신발(구두와 운동화)로 일년을 버티는 젊은 남성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다. 이는 매년 여름 바뀌는 유행에 따라 유행 지난 샌들을 신발장에 모셔두고서 새로운 것을 구매하는 대다수의 젊은 여성들과는 사뭇 다르다. 다양한 옷 만큼이나 다양한 신발들, 싸롱화, 하이힐, 로퍼, 운동화, 여름샌들, 겨울부츠, 정장구두, 점정, 갈색, 빨간색, 분홍색, 흰색...

개인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대개의 남성 신발이 낡은 채 버려지고, 대개의 여성 신발이 신발장 속에서 새 것을 새도 없이, 유행이 지나 그저 저장되는 현상은 일반적이다. 이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남성들에게는 '적극적', '활동적', '능동적'이라는 형용사를 호명하고 여성들에게 '미를 추구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일 것이다.

남성들에게 있어 구두는 여전히 토털 패션으로의 장신구보다는 필수품에 가깝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구두를 갈아 신는다는 것은 걸어다니기 위한 도구를 교체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낡은 구두를 미련 없이 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여성, 특히 젊은 여성에게, 구두는 보여짐을 위해 선택된 것으로 그들에게 구두 갈아 신기는 또 다른 나의 연출 또는 변신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다. 광고를 비롯한 매체들이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유행과 미를 추구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들에게 유행과 계절, 시간과 장소에 따라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의 에티켓이다. 짧은 미니스커트에 검은 색 긴 부츠 혹은 하이힐, 빨간 원피스에 빨간 구두, 정장에 단정한 구두, 시원한 여름 원피스에 하얀 샌들... 어느 새 구두는 여성 자신이 되고 그녀는 그 속에서 사라진다. 주객의 전도. 이제 더 이상 구두는 도구가 아니다. 유행과 격식을 갖춰 신을 갈아 신어야 하는 그녀들. 그런 까닭에 여성의 유행 지난, 그리고 몇 번의 기회를 위해 구비되어 있는 구두들은 신발장 속에 가득하다. 신을 갈아 신을 때마다 또 다른 여성됨을 연출하는 것. 어제와, 그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오늘의, 지금의 나를 연출하기. 이는 연속성을 잃은, 단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성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다.

2. 여성의 불안심리

탄생, 자라남, 어른 됨, 결혼, 어머니 됨=양육, 여성성의 상실, 새로운 노년의 삶 찾기로 이어지는 여성의 인생력. 그러나 이 각각의 지점들은 이상하게도 연속적이지 않다. 어머니들에게 그녀들이 어머니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녀들의 과거는 잊혀진지가 오래이다. 마치 유행 지난 구두

들이 신발장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이야기는 '여성'은 객체이며, 타자이다'라는 어느 페미니스트의 외침이 그녀를 피해망상증 환자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망상이든 아니든 여성은 남성보다 더, 아주 심하게 단절을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잃어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진실이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말들, '여자팔자 뒤통박 판자', '여자는 어려선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그 후에는 아들을 따라 살아야 한다', '딸은 가문의 핏줄을 이을 수 없다', '시집간 딸은 그 집안 귀신이 되어야 한다', 등등... 이러한 말들은 지금까지의 불연속적인 여성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엄청난 예언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조차 딸들은 언젠가 다른 집 식구가 될 존재로 위치 지워지고, 초중고 학창시절 동안에 그녀들은 정형화된 성역할을 학습하게 되면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상충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무엇이 될 수 없다', '여자 제자들은 졸업 후에 찾아오지 않는다', '여자는 연애 또는 결혼하면 달라진다' 등의 논리로 이어지는 그녀

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심지어 그들의 진로선택도 적성보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성들이 할 수 없는, 혹은 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직업들의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그녀들의 선택에 간섭하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후, 학풍유지에 저해가 되는 존재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열심히 했던 동아리 활동. 대다수의 경우 이는 결국 허무감으로 기억되고, 제대한 남자 동기들이 주인처럼 차지한 예전의 그 과방 혹은 동아리 방을 고학번 선배가 된 그녀들이 다시 찾는 것은 오히려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연애를 하게 되면 그나마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멀어지게 되고... 결혼이라는 미래형 짐작으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도 간신히 잡은 일자리, 그에 적응하느라 그녀들은 대학에 무관심한 동문 선배가 되고... 버티다 버티다 결국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 된 그녀들은 새 가정, 시대 식구에 충실하느라 친구는 물론 자신의 친인척조차 쉽게 잊게 된다. 자신들의 꿈은 물론, 아이의 양육을 위해 정열을 쏟던 아름다운 주부들, 그러나 훌쩍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어머니 된 그녀들이 자신을 찾으려 할 때, 그녀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번도 자기 자신이지 못했던 과거들이 유행 지난 구

두처럼 파편화 되어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달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에서 (특히 결혼)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현실들과는 다른 삶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성급한 확인일지는 몰라도 모든 여성들의 무의식 속에는 '당신은 곧 단절, 불연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교서가 각인되어 있다. 사회적 학습, 즉 여성을 언급할 때 말해지는 그 무수한 말들이 그녀들에게 항상 떠나야 한다는 강박을 남겨 주는 까닭에 책임감이 없다는 식의 무수한 비난들 속에서도 그녀들은 과감히 어떤 상황이나 일에 뛰어들지 못한다. 결국 또 다른 자리로 떠나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지금 이 순간이 연속적으로 자신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중년 부부들의 심리적 갈등인 빈 둥지 현상, 아들을 두고 두 여성이 벌이는 고부갈등(이는 아들을 잃게 되면 동시에 자신도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진 어머니들의 심리적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이 취업시 겪게 되는 어려움, 결혼한 여성들의 교우관계 축소 현상 등. 개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주인이 되려해도 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분개와 실망. 그리고 내가 아닌 그 누군가

들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겪게 되는 자아 분열의 상처. 이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성들이 그 아픔과 함께 겪게 되는 이중고들이다.

연속적이지 못한 삶과 그로 인한 상처를 예감하고 있는 까닭에 그녀들은 또한 불안하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들의 구두 구매 양상은 여성의 단절적인 삶과 유사하다. 자기연출을 위해 새 구두를 사는 여성들은 그 구두들이 채 남지도 못한 채 신발장 속에 박제되어 버리는 과정과 유사하게,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 속에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추고 (자신들의 과거와 단절된 채) 새로운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게 된다. 따라서 구두 구매시 젊은 여성들이 실용성보다는 디자인(보여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상은, 누군가(아버지, 남편, 자녀)를 위한 어떤 존재(딸, 아내, 어머니)들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강요하는 가부장적 문화 풍토를 체화한 소위 '뒤옹박 팔자'라고 불리는 여성의 운명과 불안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선택지-전열대- 안에서 합리적인 사고과정-용도, 가격, 디자인, 의상, 계절, 연령, 상표 등에 대한 고려를-통해

가장 적절한 상품을 구매하는 작업, 모든 상품 구매가 그러하듯이 구두구매도 '주체적, 합리적으로 답 선택하기'라는 환영에 의해 조작되는 소비 양상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성의 구두 구매 양상은 벗어날 수 없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단절적인 삶과 이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 구매 현

상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여성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한국학**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발냄새 이야기 —더러움에 스며든 권력

-out-

남편의 선배 중에 경상도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남편과 내가 찾아갔을 때, 그와 그의 아내는 똥과 풀을 섞어 두엄지라를 만들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냄새 풍기는 것이 미안했던지 내게 말했다. 똥이 색을 때의 빛깔은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예쁘지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눈 똥을 보지 않게 되면서부터 본질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나는 대꾸했었다.

-오정희, 「옛우물」에서

“재수 옴 붙었어. 향기가 나도 시원찮을 여성언론에서, 처음부터 이런 냄새나는 이야기를 실는 건 무슨 심보야!”

“재밌는 말이다. 그래 니 코는 하얀 종이 위의 이 까만 잉크에서도 똥 냄새가 나나보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라구? 왜?”

“여하튼…재수없잖아! 어떻게 그런 상스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이라…그렇기도 하다. 똥이라니…뭐 이런 말들은 정숙하고 아름다운 요조숙녀의 입에서 나올법한 말들은 사실 아니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두 실은 고상하게, 살고 싶거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말아야, 천박하고 상투적인 건 정말 싫어. 그렇지만 유독 이런 말들이 눈에 띄는 건 무슨 연유일까?

참을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좀 있었어. 구두라는 주제를 놓고 어떻게 어떻게 발냄새에까지 생각이 미쳤는데, 글썽 댄지 친구들 반응이 시큰둥 하더라구. 아마 위에서와 비슷한 생각에서였겠지. 슬그머니

오기가 작동하더라. 그리고 댄지 권위있는 지식을 빌어서라도, 자기는 아닌 척, 거부의 표현을 통해 면죄부를 얻는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럴듯하게 말이 되도록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더욱 결정적으로 정숙함에 대한 나의 찬미를 깨어버린 건, 내 남자 친구의 군대 생활에 대한 ‘양심선언’ 때문이었어. 개가 목소리가 좀 작아, 글썽 그 친구가 훈련소에 있을 때 말이지,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알아? 왜 조교라 부르는데 애들 있잖아, 개네들이 내 남자 친구 목소리가 작다고 하는 말이 ‘야! 이 X지 새끼야. 너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와? 니가 X지 새끼냐?’ 그런대, 말끝마다 ‘X지 새끼’를 입에 달고 다닌다는데, 너도 안 믿기지? 거짓말 같으면 네 남자 친구한테 한 번 물어봐. 모른다고 잡아매면 그건 아마 남본^①의 지시일거야.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어떤 문화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용되는 이유가 궁금해지더군.

화가 나는 걸 잠시 누르고 뽀뽀하게 설명할 방법을 꼼꼼히 생각하다가,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 상스럽다고 말하는 것들이, 더럽다고 하는 말들이 실은 성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성에 관한 말들이 상스럽고 천한 말들이 되면서 한부로 입에 담을 수 없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고상한 개념으로 ‘금기’와 연관을 가졌으리라 어렵

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금기’라는 말을 찾아 한참을 헤맸어. 그리고 발견했지. 푸코의 말인즉슨, 담론의 질서에서 배제의 과정으로 금기의 형식을 쓴다는 거야. “대상에 있어서의 금기, 상황에 있어서의 관례, 말하는 주체에 있어서의 특권적인

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X지’로 쓰기로 결정했다. 우리네 문화코드에서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성애화되어 있는 말인 탓에 자기검열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말았다.

② 남본은 ‘남성중심본부’라는 비말권력체이다. 이 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는 배타적인 권리.” 너무 어렵다구? 쉽게 말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말할 권리는 없다는 거야. 즉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나, 누구나 그리고 무엇에 관해서나 말할 수는 없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 이 말을 두고서 옳구나, 아무 때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들어있는 거구나 오해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요즘은 없겠지? 차라리 왜 말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다른 오해로, 이런 주장은 아직도 넘쳐나는 것 같은데, ‘성에 대한 금기’를 말하는 것이 ‘금기를 위반해서 억압되어 있는 성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곧바로 집수하면서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지. 그런 친구들은 얼른 생각을 바꾸어야 할거야. 아주 중요한 문제일텐데, 금기가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보편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푸코에 따르면 서구에서 성에 관한 한 르네상스 이래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수한 담론이 생산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금기는 뭐냐구? 쉽게 말해, 성에 대해 무조건 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성에 관해 말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때와 장

소는 무엇이고, 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가라는 것이며, 그 때 그곳에서만 말하도록 하는 힘은 어떤 목적을 가졌나라는 거야. 군대에서 ‘X지 새끼’라는 말에 대해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곳에서는 여성성에 대한 폄하를 통해 ‘사나이 문화’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겠지. ‘성적 욕망’에 관련한 얘기들이 사나이들 문화에서 별로 은밀하지도 않게 떠도는 방식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

자자, 다시 돌아와 보자구. 발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 것 같애. 이젠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 지금은 친구들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애.

“구두가 문제인지 내 신체구조가 문제인 것인지, 1학년 때 발냄새가 이상하게 심하게 났었다. 가장 곤혹스러운 건 과외집에서였다. 하루종일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과외하는 집에 들어서면서 꾸벅꾸벅거리며 신발을 벗을 때 혹 밀려오는 발냄새는, 혹시 집안 어른이라도 나올새라 후다닥 화장실부터 직행하도록 만들었다. 비누로 뽀드득 소리가 날때까지 발을 씻은 후 양말을 갈아신고서야,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나는 보은집(특정 가게를 비난하거나 선전하려는 의도는 없음. 의자와 방이 구분되어 있는 가게를 그냥 생각하면 됨.) 같은 데 갈 때가 두렵다. 바깥에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신발 벗고 방으로 들어가자고 할 때는 정말이지 너무 싫다. 일찌감치 멀찌기 구석에서 애들과 떨어져서 앉는다. 누군가 다가오면 두발을 엉덩이 밑에 꼭꼭 숨기고, 혹시라도 냄새가 새어나올까 움쭉달짝 앉은 채 암전하듯 앉아 있곤 한다.”

“요즘 라디오에서는 로푸드스 선전이 한참이다.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저 여자 정말 예쁘고 참하게 생겼다고 떠들다

가 손발톱 무좀 때문에 이미지가 백팔십도 짝 바뀐다는 식의 이야기다.”

여성들에게 발냄새가 난다는 건, 혹은 지저분하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일까? 남성들의 땀냄새는 건강미이고 소탈한 것일 수 있지만, 여성들은 혹시 ‘청결함이 살 길’인 건 아닐까? 아아, 물론 쉽게 일반화시키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어. 남자에게도 대부분 지저분하고 냄

새나는 거 싫어하고, 또 발냄새 좀 나는 여자애들 두고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너그러운 남성들도 많다는 것. 그렇지만 더러움이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에게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못하겠지? ‘그녀에겐 비가 갠 뒤의 청명한 날씨가 스며드는 아카시아 향내가 났었다.’ 뭐 이런 식의 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홀에비 냄새’라는 표현으로 어떤



점에서는 냄새나는 남성들을 쉽게 당연시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한다는 것. 향수나 향기가 여성들이 집착하고 매일 수 밖에 없는 강박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은 쉽게 볼 수 있잖아.

청결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강요되는 차별만 해도 무수하겠지만 이쯤에서 접고 시선을 잠깐 돌리자구. 남성들 혹은 여성들 일반으로 구분되어 사고되지도 못할 뿐더러,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문화적 분위기에는 당최 관심도 없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의 순결성에 대해서만 되뇌이고 있을 친구들이 눈에 선하거든.

‘더러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 더러운(?) 얘기일수록 고상하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대중 생각해보니 ‘위생’이라는 그럴듯한 말이 있더군. 문명화된 삶이 흔히 위생적 삶과 동일시될 정도로 ‘깨끗한 몸’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적 기호라는 것엔 반론이 없겠지. 손 대신 수저를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한 번 더 씻곤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건강을 생각하는 합리적 위생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은 자명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문명화과정』에서 사회학자 노베르트 엘리아스는 몸을 규칙적으로 닦는 행동이, ‘더러운 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명백한 위생의식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잘라서 말하더라. 깨끗한 몸에 대한 열망이 위생적 의식으로서의 행위라는 것은 깊이 망각되고, 이젠 특정한 사회관계가 빚어내는 수치심과 곤혹스러움 때문이라는 거야. 한때 사람들 앞에서 코를 풀거나, 방귀를 뀌거나,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참는 것은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대. 그렇지만 지금은 위생의식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맺음 등의 ‘기호’로도 사용된다는 거야. 지체높은 사람 앞에서 이런 행위들이 대단한 실례가 되

는 예들은 흔히 볼 수 있잖아. 단순히 인간들이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거나 건강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해지는 문제라는 걸 엿볼 수 있지 않니?

위생의 문제가 사회의 건강을 위해 어떤 주체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었다면, 이젠 스스로의 육체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관계를 제어하는 하나의 의무가 되면서 주체의 자발적 행위로 확실히 자리잡은 것 같애. 육체에 대한 자기의 의무로서 이러한 행위들은 푸코의 말을 다시 잠깐 빌리면, 모종의 미시적 권력의 작동방식이라는 거야.

이러한 권력의 은유는 국가로도 확장될 수 있어. 정치적 단체(體), 사회 구성체(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도 하나의 육체로 비유된다면 권력은 육체를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지. 절대 국가에서 국가적 육체의 통합성이 전제군주의 힘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복원되었다면, 현대의 민주국가는 병자의 제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통제, 사회적 범법자의 배제 등과 같은 유사 위생적 배제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재밌는 은유지 않니? 국가라는 육체에 대한 위생적 제어의 방식과 개인의 몸에 대한 위생적 제어의 유사성! 믿기 어렵다구? 하긴 이렇게만 설명하는 건 확실히 비약인 것 같애.

다시 한 번 천천히 정리하고 기억해 보자구. ‘순결’은 다분히 실체적인, 건강을 위한 위생의 수준에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제어하는 하나의 은유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말이야. 더러운도 실체가 아니라 차라리 은유라는 것. 이런 예로서 아까 하다가 얘기, 성에 관련된 금기를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성은 더럽다’라고 하면...

서구에서 마스터 베이션에 대한 금욕주의자들의 공포가 하늘을 찌를 때, 그걸 제어하기 위해 퍼진 담론의 주요 논리가 ‘손을 더럽힌다’는 거였지. 그래서 더럽히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들의 성적인 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건 유명한 얘기잖아. 불쌍한 아이들! 쫓쫓. 어때? 감이 좀 잡히지 않니?

다른 얘기 또 해볼까? 그 왜 ‘순결’이라는 불편하고 언짢은 말 있잖아! 순결을 잃는다는 것(?)이 어디가 어떻게 왜 더러워진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결’이라는 것이 여성의 발목을 잡아두기 위한 역사적 고안물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

되었지. 남성은 여성을 더럽힌다는 신화 말이야. 섹스를 하면 여성의 육체가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몸 때문에, 여성의 가치가 갈라진 데 없이 하락되는 거지. 그리고 그 더러운 몸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만 용서될 수 있는 거야.

이건 보봐르의 얘기인데,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더럽히는 행위를 통해서 한쪽에게는 정복자의 느낌을 다른 한쪽에게는 피

정복자의 느낌과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거야. 여기서는 ‘더럽다’는 은유를 통해 정복과 피정복의 관계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제발! 세상엔 아름다운 섹스가 얼마

나 많은지, 나도 대중은 짐작하고 있다구! 그렇지만 예전에 이런 말을 우스개소리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여자는 성관계 후 백반을 목욕재계 해야지 다시 치녀가 되고, 남자들은 샤워만 한 번 하면 된다고 하더군. 이런 예는 무수하잖아. 걸레같은 년!이라는 말로써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눈에 선하지 않니? 더러운 놈!이라 하면 사실 진짜로 온몸에 때가 꼬장꼬장하거나 성질이 뭐 같은 인간을 지칭



할 때가 많으면서, 더러운 년!이라 그러면 유독 성에 관련한 글기와 관련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성적 우위를 통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말이지.

발냄새가 여성들에게 유독 치명적인 건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더러움의 은유



가 여성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은 아닐까? 여전히 성적인 것들 주변과 연결되어 땀 돌고 있는 그 상스러움, 그 천박함, 그 더러움이라는 평가 때문에... **남자**

남자들에게 남자들만의 비밀이 있다

— 어느 남적이어서

세상은 괴로운 일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다. 알고 보면...

그럼 시작해 볼까?

남자들에게 남자들만의 비밀이 있다. 이것은 여자들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이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 그 아아아아아하고 무시무시한 남자들만의 비밀, 음모를 여자들에게도 공개하고자 한다.

남자들에게 남성중양본부(이하 남본)라는 것이 있다. 단 한 번도 여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지만, 이 단체는 전 지구의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을 만큼 거대하고, 또한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누대에 걸쳐 존재해 왔을 만큼 유구한 조직이다.

이 거대 비밀체의 목적은 여성에 대해, 즉 여성에 대해 남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 남성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A라는 남자는 B라는 여자에게 차였다. 그는 슬프고도 억울한 심사로 '남성중양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이 때 분개한 '남성중양본부'의 중앙위원들이 B에게로 잘 생긴 남자 C, D, E를 파견한다. 이들의 임무는 간단하다. B를 포섭 후 무참히 차버리는 것이다. 아예는 이, 눈에는 눈!!! 많은 수의 마남을 파견하는 이유가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술이라는 걸 여러분은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남성중양본부'는 남성들이 당한 만큼의 괴로움을 가해자인 '여성'에게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다. 하여튼 모든게 대충 이런 식이다.

자, 모두는 이 글을 읽고 돌아가 남자친구에게, 아버지에게, 또는 남동생에게 물어보라.

'진짜, 남성중양본부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백이면 백 모두 그렇게 어쨌나고 비웃듯이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있다. 박통 때 의문의 번식체로 발견된 장모씨(그는 남자다)는 한국 여성들에게 '남성중양본부(이하, 남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신문에 실을 긴 논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채 신문에 실리기 전에 그는 본부요원들에게 끌려가 남자들만의 비밀을 누설하려고 했다는 죄로 암살당했다. '사가'를 쓴 사마천이 공형을 당한 이유는 남본의 존재를 자신의 역사책 '사기'에 남기려 했기 때문이다.

'본부비밀 누설죄' 또는 '본부비밀 누설 미수죄'에 걸리면 이토록, 이토록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누대에 걸쳐 남성들에게만 내려온 '남본'의 비밀... 사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과묵함'이 미덕이 된 것은 다 남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앗! 여기서 상식 한 가지. '남본'이라는 말의 기원을 아십니까? 원래 남본이라는 말은 '남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계집 잘 후리는' 男本꾼이 변형되어 남본꾼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글이 유치하다구요? 전 목숨을 걸고 암살선언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자. 남자들은 말을 게 못됩니다. 오직 저만이, 남본의 비밀까지 용기있게 폭로할 수 있는 저만이 여성들의 친구가, 진정한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여자

-마루-

1. 연애관계에서 헤어짐의 제일조건은 배신이다. 배신하기, 떠나기, 상처주기.
반복되는 연애와 헤어짐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떠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기에 순간의 감정에 자유로울 수 없다.
결코 과거를 반추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2. 남자가 군대를 간다. 주위에서는 언제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지를 점친다.
그들은 자신들의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에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극적 효과가 뛰어난 헤어짐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큰 일탈의 희열을 맛볼지도 모른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여자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어진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잠시동안의 일탈일 뿐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다시금 새로 재편된 지형도에 익숙해지고 자신에게 또 다른 일탈의 희열을 가져다 줄 것을 찾는다.

3. 남자가 군대에 갈 때 여자는 그 연애관계에서 최초의 일탈을 맛본다.
언제나 똑같은 말, 똑같은 행위로 가득 차 있는 연애관계.
처음의 가슴앓이는 갖다 버린 지 오래인 연애관계.
또 하나의 지루한 일상으로서의 연애관계.
남자의 군입대는 여자의 일상의 균열이며 이제 새로운 일상을 제공한다.
이제 둘의 만남은 일상이 아닌 일상에서의 벗어남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녀가 아름다웠던 내게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가.
멀리 있음에 기인한 그리움으로 인해 여자의 일상에 있어 남자의 의미는 더욱 부각된다.
여자는 자기 일상에 있어 작은 균열, 일탈을 즐긴다.

4. 그러나 일탈은 오래 가지 않는다.

여자는 그리움이 환영이었음을 깨닫는다.
여자는 다시금 일상에 익숙해지고 작은 균열조차 이제 일상으로 포섭된다.
이제 여자는 본격적인 탈출을 감행한다.
물론 이 탈출 또한 또 다른 일상으로의 진입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여자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일탈의 과정 자체가 잠시나마 자신에게 희열을 안겨다 줄 것을 안다.
그것은 한 남자와의 관계로 규정되어 있던 자신의 일상을 깨뜨리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여자의 배신을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언명을 통해 비정상성으로 규정하는 통념에 대한 면면한 응수이기도 하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행위는 연애관계에서 맛볼 수 있는 최대치의 일탈일지도 모른다.
여자는 라인의 비난을 거머쥔 받아들이는 동시에 스스로 가슴 아파하고 자책함으로써 일탈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여자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나쁜 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낸다.
여자는 여전히 알고 있다.
이것 역시 일상 속에서 허용된 일탈이라는 것을.
곧 잠잠해질 일탈의 돌결일 뿐이라는 것을.

구두 구두 신기 신기

구두가 맞지 않으면 발을 바꾸어야 할까?

가끔씩

내가 구두를 신는 것이 아니라

구두가 내 발을 신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원치 않는 삶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진작 구두의 독재에 대항했어야 했다

진작 그 구두를 찢거나 벗어버렸어야 했다

아니면 진작 구두에 길들여졌어야 했다

내 발과 맞지 않는 구두 속에서

내 발은 불안하게 흔들린다

-장석주 '크고 험렁험렁한 바지'중 일부 반응

구두 신고 뒤편 날

한발 한발

그래 가끔은 하이힐을 신자



구두 신고 뛰던 날

—프시초—

1. 자주색의 굽낮은 구두

나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교복을 입었다. 교복을 입으면 당연히 제약이 가해지는 머리 모양과 가방 그리고 구두... 특히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학교구두가 따로 있었다.

자주색의 굽이 아주 낮은 구두였다. 꼭 학교구두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모양의 구두는 많았지만 유독 학교구두는 더 볼품이 없고 딱딱해서 불편하기도 했다. 그래서 친구들은 몰래몰래 운동화도 신었고 좀 모양이 예쁜 구두도 신고 다녔고 날라리인 아이들은 오즈의 마법사 구두나 뽀족 구두도 신었다. 다시 말해 사실 우리학교에는 이름만 학교구두가 있었지 별 단속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난 엄청난 모범생이었고 반드시 학교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그런 아이였다. 아니 어쩌면 학교의 학풍을 살리기 위해 그럴 수 없다는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루는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고 집에서만 신는 끈달린 캐주얼화를 신고 나왔다. 버스에 오르는데 그 구두를 신은 것을 발견하고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시간...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들어갔다. 마침 그날따라 체육 선생님이 교문을 지키고 계셨다. 순간 난 갑자기 구두를 벗어두고 양말만 신은 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평정한 모범생이라는 것을 아시는 선생님께서 날라리 아이들에게 나를 막 칭찬하셨다. 그 이후로 단 한번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뭐 모범생이었다고 자랑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시절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왜 난 단 한 번의 일탈조차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왜 규칙에 맞춘 일상에 그렇게도 충실했나 말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대학에 들어온 요즘이라고 해서 그리 나아진 것도 없다. 비록 학교구두같은 구두를 신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나는 단발의 구두로 캠퍼스를 밟는다. 운동화에도 어울리고 정장바지에도 어울리는 '대학생 구두'라고 쓰여진 구두...나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일탈을 시도했지만 역시 대학도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여대생답게 굴어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난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대한 일상의 운동장을 '규칙업수'라고 외치며 돌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2. 멋있게 넘어지고 싶다.

구두를 신으면 멋있게 넘어질 수 없다. 사실 멋있게 넘어진다는 것도 없지만... 여자라면, 높은 굽의 구두를 신어 본 여자라면 다 알겠지만 구두를 신고 넘어지면 우스운 장면이 연출된다. 또각또각 걷다가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숨을 멈추고 긴 머리를 한 번 스윙 휘날리고 싶지만 항상 그런 순간에는 구두가 삐끗한다. 오호, 옆으로 엉덩이가 볼썽 빠져나올 때 뒤에서 킁킁거리는 사람들...그럴 때는 앞뒤 가리지 말고 뛰어야 한다. 다시 우아한 척 하며 걷는 것도 웃기니까 그냥 앞만 보며 달리는 거다. 그러다가 아까의 명장면을 본 사람이 없어지면 다시 우아하게 걷는다. 사실 삐끗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더 좋은 것은 구두 굽이 나가는 것. 특히 종합관같이 가파른 언덕을 내려올 때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실제로 본 일인데, 어떤 여학생이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종합관 계단을 내려오다 뒤로 넘어졌다. 그때 나는 볼 수 있었다. 구두굽 한 쌍이 그리는 포물선을 순간 나는 같은 여자로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과잉 기사도 정신에 시달리던 남학생이 두 손에 굽을 한 개씩 들고 공손히 그 여학생에게 건네주었다. 그 여학생의 빨갛진 얼굴이라니...그럴 때는 그냥 계단에 엎드려 있는 것이 상책이다. 그냥 얼굴을 들지 말고 엎드려 있는 거다. 사람들이 굽을 주어다 주면 그냥 얼굴을 들지 말고 '고맙습니다, 전 괜찮으니 가보세요.' 라고 말한다. 그렇게 몇 분 있다가 사람들이 가면 굽 주어들고 다시 뛰어야 한다...만약 한 쪽 굽만 나갔을 때는 영화를 따라하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다. 한 쪽 굽도마저 부러뜨리고 당당히 걷는다든지, 하지만 부러뜨리는 것이 아까운 사람은 한가지 방법 밖에 없다. 절뚝거리면서 일어나게 뛰는 것.

구두를 신으면 우아한 것이 어울린다. 하지만 구두가 우리의 일상의 발이 된 이상 항상 우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끔은 다시 우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공간(한 블록 뒤 정도?)을 향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77%**

여자들은 밤길조심 남자들은 발길조심



한발 한발 한발

-240-

나는 발이 까치발(평발과 반대로 발의 중앙 안쪽부가 보통사람의 발보다 많이 패여 있는 발을 말한다)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걸어도 쉬이 피곤해지고, 걸기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얼마전 6cm짜리 굽의 로퍼를 샀다. 처음엔 이 놈의 신발이 작더니 이제는 너무 크다. 옷 기계도 내가 신발 늘린답시고 양말을 신고 막 돌아다니는 덕분이다. 어쨌든 지금은 커서 질질 끌고 다닌다. 마치 슬리퍼처럼... 게다가 슬리퍼처럼 뒤가 트이고 굽이 낮고 신발 자체가 가벼워 부담없는 스타일이 아니라 굽은 6cm에 정장이나 어울릴 것 같은 고급풍의 신발을 신고 뒤통뒤통, 발을 내딛을 때마다 '탁' '탁' 소리가 난다면 얼마나 웃기겠는가? 마치 엄마 신을 몰래 신고 나와 어른 흉내를 내며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는 아이처럼 보일 것이다.

그날따라 나에게 정장을 입어야 할 일이 생겼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가야 했기 때문이다. 정장바지를 입고, 아무 고민없이 내가 가진 몇 개의 신발 중 나의 새 구두를 신고서 나는 집을 나선다. 물론 내 신발 속 나의 발들은 평상시의 양말 대신 스타킹이 감싸고 있다.

안 그래도 늘어난 신발에 스타킹까지 신으니 미끌미끌 신발이 쑥쑥 빠진다. 마치 내 발에 기름을 칠해 놓은 듯 하다. 그것도 모자라 정장바지가 신발 속으로 쑥쑥 들어가기까지 한다.

"어이쿠!"

하지만 시간이 늦은 터라 나는 걸음을 더욱 재촉한다.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모든 힘을 두 발에다 집중시키고 가끔 가다 바지가 신발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빼내고, 정신없이 한



발한발 내딛는다.

그날 밤...

안 그래도 예민한 나의 발이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겨 고생시켰다고 나에게 투정을 해왔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피곤해 그냥 잠들어버리고 만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집안에서 맨발로 걷는데도 발이 아프다. '저녁에 목욕을 하며 발 마사지라도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는다. 욕조에 들어앉아 발 마사지를 하며 생각해 본다.

[정말 걸기가 싫은데 난 걸어서 어딘가를 가야했다.

한발한발 내딛는 게 나에겐 고통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

지금 왼발을 디뎠으면 다음번엔 죽어도 내딛기 싫은 오른발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른발은 싫다 한다.

하지만 이미 오른발이 앞으로 나간 상태이다.

이번엔 왼발이 투정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은 이미 내가 두 발을 온전히 갖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물이다.

왼발 다음엔 오른발 다음엔 왼발 그 다음 오른발...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

이렇듯 가장 자기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다룰 수 있어야 할 자신의 몸



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껏 제어할 수가 없다.

왼발을 디딘 후 오른발을 디디기 싫다고 계속 왼발로만 디디고 다닌다면? (정상인으로서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허리가 왼쪽으로 구부러질거다. 그에 따라 허리 디스크가 찾아 오겠지. 왼발도 퐁퐁 부을 거야. 반면 왼발의 점프력이 상당할 거야. 균형감각도 탁월해지겠지.

“태어났면서부터 신체구조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디디며 걸어야 할 운명이다” 라는 것이 내가 육조 안에서 내린 결론이다. **79쪽**

그래 가끔은 하이힐을 신자

-피라-

글의 목적과 성격 : 고소공포증이 있어 굽높은 하이힐을 신을 엄무도 내지 못하는 사람과 하이힐을 신고 발이 터져버렸던 악몽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짚은 신어보라고 끄시는 글

또각...또각...또각...

조용한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여자의 단정한 하이힐 소리는 어린시절 나의 동경의 대상이었다. 엄마가 나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면서 하시던 말씀, ‘우리딸, 이제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네.’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며, 내가 커서 정말 그런 구두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 어느새 미스코리아가 되어 있겠거니 하는 환상을 오랫동안 품어왔다. 어느덧 나는 정말 미스코리아에 나가도 될 만큼의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미스코리아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동경해 마지 않던 하이힐도 잘 신지 않는다.

사실 집에서 학교에 오기까지 3번이나 차를 갈아타야 하는 나로서는 단정한 구두소리를 내게 하는 하이힐은 독약이다.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걷는 것 따위로는 경쟁사회 **●**(이를테면 1호선에서 2호선을 갈아타기 위해 돌진해야 하는 환승역)의 낙오자가 되기 십상이다.

● 경쟁사회는 비단 환승역뿐만이 아니다. 한번은 학교에 하이힐을 신고 왔다가 하도 조여오는 바람에 발이 터질 것만 같아 수업을 다 듣지도 못하고 집으로 간 경험도 있다. 하이힐을 신음으로써 그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명장도 아니고 적어도 생리통도 아니고, 단지 하이힐을 신었다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이유때문에 난 수업을 듣지 못하고 따라서 뒤쳐진 것이다. 얼마나 무스꽝스러운가? 그날 이후 약 한달동안 발뒤꿈치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볼 때마다 쑤스러워지는 감정이란...



계다가 하이힐을 신고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 올 때면 난 생명의 위험마저도 느낀다. 코르셋을 입다가 허리뼈가 부러진 빅토리아 시대의 누구 될까봐 말이다.

그렇다. 하이힐은 또 하나의 코르셋이다. 나를 야금야금 죄어와 결국은 숨막혀 죽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아니면 허리뼈를 콕 찢어버릴 수도 있는 괴력의 코르셋이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스스로 환상적인 장면을 한 컷 그려본다. '코르셋이 조여온다... 실이 튀어나온다... 팽팽해질대로 팽팽해진 코르셋... 그것이 나를 더욱더 조여온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다. 펑!!!.....' 찢어진 코르셋 밖으로 터져나오는 내 살과 함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용어 리도 밖으로 날라가버린다. 휴... 그제서야 나는 숨을 쉴 수 있는 것이다.

단화를 3개나 가지고 있는(그게 그 구두이니 3개이건 100개이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하이힐을 신으면 그런 상상을 한다. 그러면 그 날은 뭔가가 달라도 확실히 다른 날이 된다.

사람이 뻥뻥한 1호선을 타도 난 남들보다 머리 반 개가 더 있게 되는 것이니 숨을 쉴 공간이 있는데, 이 때야말로 말 그대로 하이힐을 신고 숨통 트일 때이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키 작은 남자잖아야 내리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하이힐... 난 그런 하이힐을 신고 우쭐해진다. 특히 지하철에서 다리를 펴악 벌리고 앉았던 옆 남자와 같은 정류장에서 내릴 때에, 일어섬과 동시에 그 놈을 위에서 아리는(아무래도 위에서 아리는 것과 아래에서 아리는 것은 다르다. 키도 권력이 될 수 있다) 그 속시원함은 하이힐이 아니면 불가능할 복수일 것이다.



또한, 하이힐을 신으면 평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학생이라고 불리던 호칭이 아가씨로 변하게 된다. 각선미나는 다리, 하체가 긴장되어 궁둥이는 뒤로 약간 튀어나와 보이고, 조금은 앞으로 내밀어지게 되는 가슴... 이건 분명히 아가씨 매무새이다. 더군다나 하이힐을 신은 날은 꼭 그레이스 백화점(지금의 현대 백화점) 지하통로를 반드시 거쳐 등교를 하게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우아하게 지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이다. 계다가 그 곳 지하통로를 통해서 가면, 곳곳에 있는 백화점 거울에 비치는 내 자신의 전신을 흘금흘금 훑쳐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변장한 나의 모습을 제차 확인하며 나에게 이런 매무새가 나올 수도 있구나 하며 감탄해 마지 않는다.

하이힐은 발이 조여오는 것과는 다른 극한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환상적인 상상을 통해서, 평소의 지루하고 진부한 나로부터 탈출시켜주는 마법의 신발인 셈이다.●

그리고 내가 하이힐을 신는 행위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셈이다. 사실, 하이힐을 신는 나의 발은 몸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하여 평소에는 거의 의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비천한 부분이다.(발에 화장한 사람은 없지 않은가?) 더군다나 땀새나고 티눈이나 무좀 따위가 생기는 발, 그 자체는 성적인 것과 거리가 너무 멀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가장 성적인 흥분은 가장 그렇지 않은 것에서 느껴지기도 한다. 야한 옷을 입은 창녀보다도 무박한 검은 플레트의

● 비록 하이힐을 신을 때의 그 불편함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이힐로 인한 감동과 고통의 상대적인 기화비용을 각각 따져보면 하이힐 신는 것은 참대로 밀지는 행위는 아니다.



안경을 쓴 정숙해 보이는 사무실의 여직원이 포르노의 주인공으로 더 적합할 때가 있듯, 발은 성적인 암시를 품고 있다. 그런 발에, 뽀족하고 늘씬하게 빠진 굽의, 바라만 보아도 뻥가는 섹시한 하이힐을 신겨준다는 행위는, 발이 품고 있는 미약한 성적인 암시를 발화시켜 드디어 걸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일종의 의식인 것이다. 이 의식은 발에 가해지는 고통을 제물삼아 치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식처럼 느껴진다. 발이 비로

소 비천함이 아닌 도발적인 매력, 아니 숨이 막히게 만들 수도 있는 마력을 지닌 무언가로 승격되었다는 역설을 느끼게 해주는 이 의식은 황홀하다. 비천한 발을 드러내는 것이 약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힐을 신는다는 것은 누가 신든간에 야한 옷을 입은 여자가 신든 여장 남자가 신든 간에 그 자체로 아주 풍부한 성적환상을 일으켜 주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다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입술을 짹는 것이 그렇고, 머리를 벽에 미는 것이 그렇다. 그리고 내가 하이힐을 신는 것도 입술짹이 하는 것이나 삭발과 별반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연히도' 내가 시도하는 하이힐 신기는 여자에게는 권장사항이자 심지어 하나의 미덕이 된다. 하지만 순한 양처럼 연속적으로 하이힐을 착용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 하이힐로 인해 매일매일 가중되는 고통 함수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더군다나 나에게 있어 하이힐로 인해 달라지는 모습이 일상의 모습이 된다면 하이힐은 나에게 있어 더 이상 변신의 도구가 되지 못할테니 감동 함수의 기울기는 점차 줄어들어 함수 자체가 음의 값을 가지는 폭락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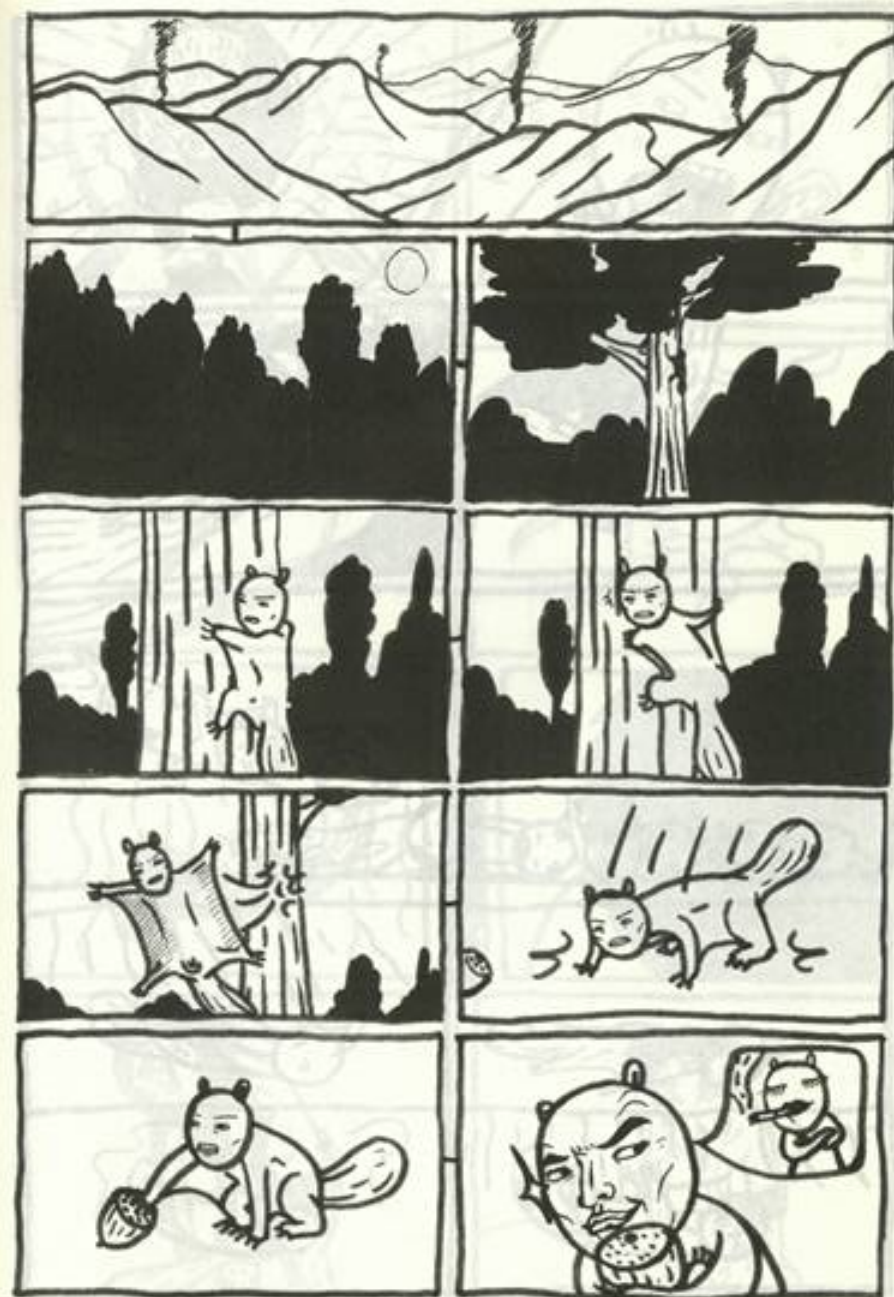
하이힐을 신은 나는 센스있고 예의바른 숙녀로 대접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럴 때 쯤이면 난 다시 마법에서 풀려나 어느새 나에게 익숙한 나의 신발을 신고서 무언가를 바라는 그들을 비웃으며 재미있고 신나게 코르셋을 다시 풀어헤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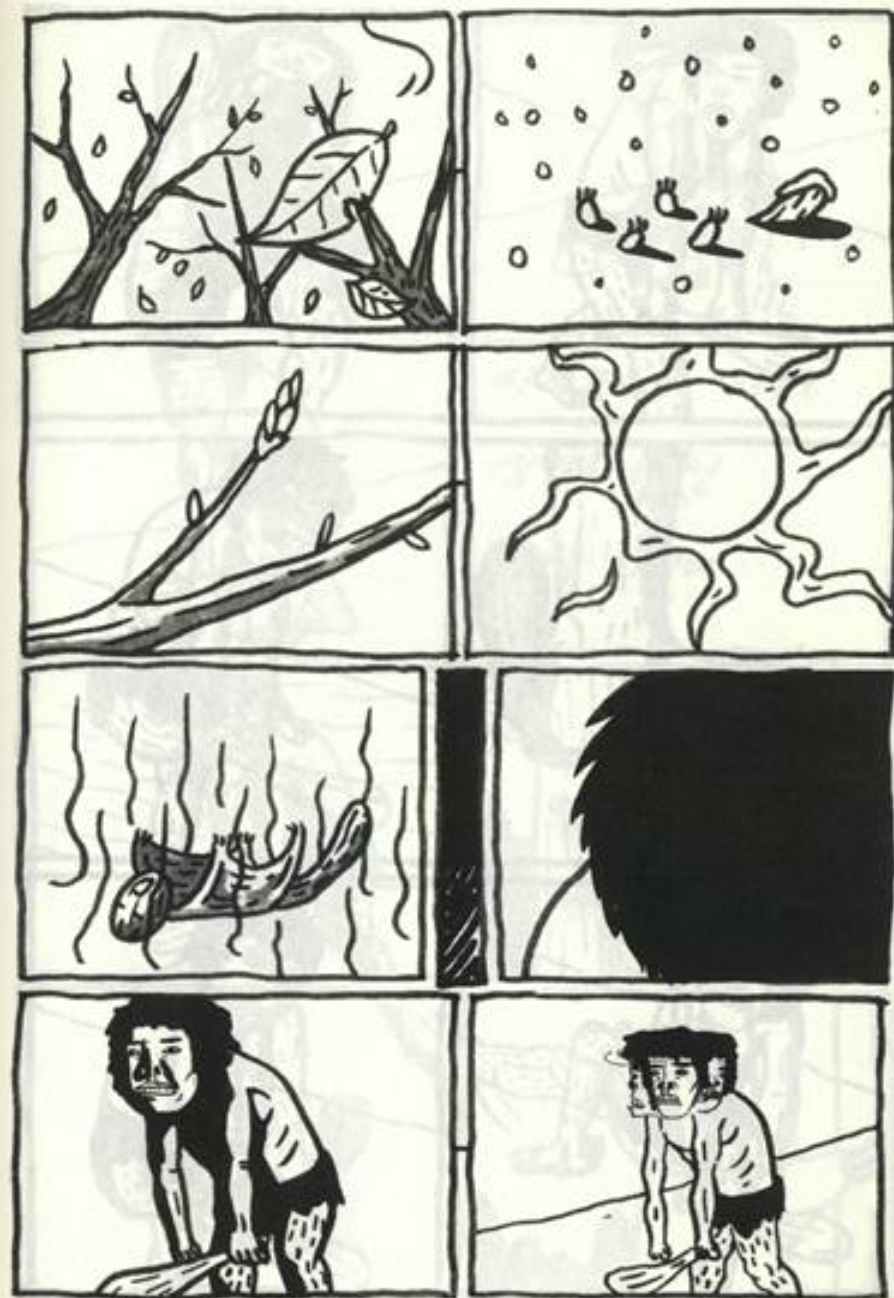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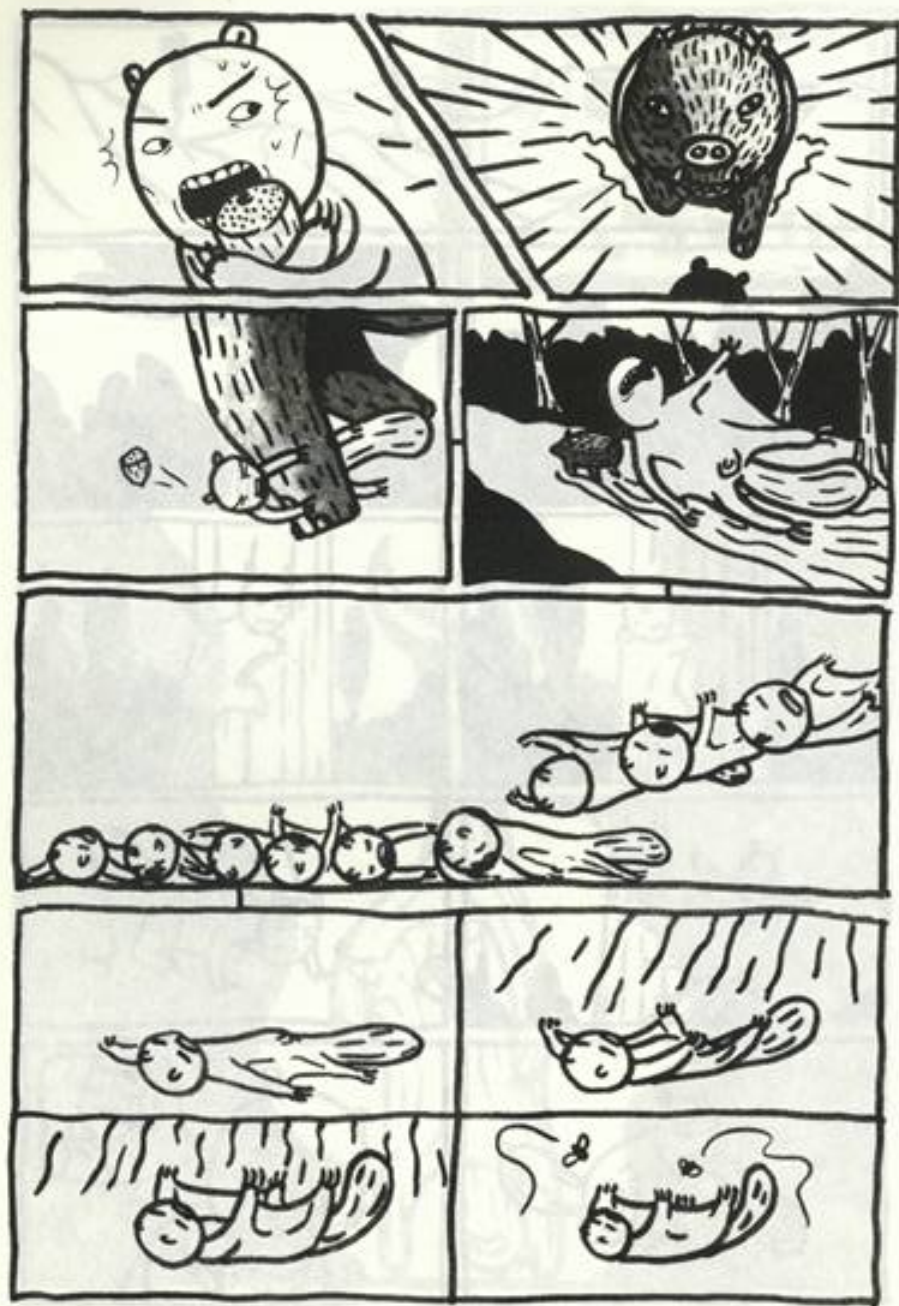
그래도, 가끔은 하이힐을 신자. **푸른**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리하야 인류는
'두발인'
인간이란 것
같이 되었다...

구두와 발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이런 구두 좋지 않다

1. 앞이 좁은 신발

자신의 발을 잘 살펴보면, 발뒤꿈치와 발가락 쪽의 폭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발은 발가락 쪽이 안정된 모양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신고 있는 신발을 보세요. 뒤꿈치와 앞쪽의 폭이 거의 같거나 앞쪽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지요? 앞이 좁은 구두는 발살이 조여지면서 체중을 받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구부러지고, 심하면 둘째 발가락 위로 올라가는 외반무지에 걸리기 쉽습니다.



발의 해부학적 구조와 일치한 형태
신경인식작용과 혈액순환기능 장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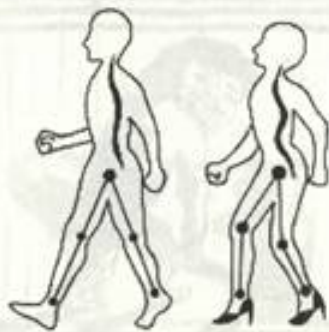


발의 해부학적 구조와 일치하지 않은 형태
신경인식작용과 혈액순환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반사무위에 침전물 생성

2. 하이힐

높은 구두는 발끝에 체중이 실려서 무릎과 척추에 부담을 줍니다. 앞이 좁은 구두와 마찬가지로 하이힐도 오래 신으면, 발이 변형되어 결국 외반무지가 되므로 이러한 구두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겠지요?

꼭 신고 싶다면 잠깐 동안만 벗고 발운동을 자주 해 주세요. 변형된 발톱이 주위 살로 파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갑입 발톱도



하이힐이나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을 때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꼭 끼거나 험렁한 신발을 피하고 발을 자주 씻어주면 피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3. 통굽

통굽은 걸어다닐 때 발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순서대로 체중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지요. 발바닥의 적절한 자극이 방해되는 거예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신지 않은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도대체 쥔 신이란 말이야!

발에 맞고 편한 신발이 최상의 선택이지요. 성인의 경우 자기 발보다 1.2cm, 청소년의 경우 1.5cm, 여유가 있는 것이 좋아요. 신발의 앞쪽은 폭이 넓고 둥근 형태가, 굽에는 무선이 있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 발바닥의 아치를 받쳐주는 '아치 지지대'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하루 중 발이 가장 많이 붓는 오후 5시경 신발을 구입해서 신고 걸어보아야 편한 신발을 고를 수 있답니다.

여성들은 굽 높이 5cm 이하의 것을 선택하세요. 굽이 너무 높으면 엄지발가락과 연결된 뼈가 아픈 '중족골두통'이나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 오기도 하니까요. 키높이 구두도 여성의 하이힐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므로 조심하셔야 하구요. 무거운 가죽구두는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항공모함 신발'은 평발로의 진행을 가속화한다니까,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신발 고를 때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아요.

1. 목적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라.

운동, 등산, 업무, 평상시, 외출, 실내에서 등등... 목적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2. 신발의 형태는 발 모양과 같아야 한다.

- A. 엄지발가락이 제일 긴 경우
- B. 엄지발가락과 제2지, 제3지 발가락이 거의 같은 경우
- C. 제2지가 제일 긴 경우



3. 신발은 조금 여유 있는 사이즈를 신는다.

신발은 발가락에 비해 1.5cm 정도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

4. 신발의 사이즈를 무시하자.

메이커마다 사이즈가 틀릴 수 있다. 신어보고 발이 편한 것으로 구입하자.

5. 좋은 소재의 신발을 선택한다.

천연피혁이 좋다. 통기성, 보온성, 신축성, 흡습성을 고루 갖춘 제품을 고른다.

6. 신발 창과 뒤꿈치 부분을 주의하여 선택하자.

서 있을 때 안정성이, 걸을 때 탄력성이 있는지가 확인해 보자. 발바닥 굴곡대로 설계되어 아치를 받쳐 주고 걸을 때 밀리지 않는 게 좋은 구두다.

7. 하이힐은 건강을 해친다.

하이힐은 발모양을 기형으로 만들기도 한다. 무거운 여성이 하이힐을 신으면 발가락에 압박감을 주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8. 낡은 구두는 과감히 버려라.

오래 신어서 가죽의 신축성이 상실되고 구조가 무너진 구두는 아깝더라도 버려야 한다.

9. 반드시 둘 이상의 구두를 교대로 신자.

매일 신는 구두는 땀과 습기를 축적하게 젖어 있어 위생의 사각지대가 된다. 최소한 둘 이상의 구두를 교대로 신어야 충분히 건조된다.

10. 신발에 신경을 쓰라. 건강이 보답할 것이다.

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

1. 걷기

빨리 걸으면 발과 뇌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산뜻한 기분이 납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며 보폭을 크게 해서,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만 효과가 있어요.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것도 방법이지요.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높은 구두를 신고 걸으면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또, 많이 걷고 나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 발바닥을 두들겨도 좋고 모서리에 압박해도 효과가 있대요.



2. 땀 조심

활동적인 사람은 발에 땀이 많이 나서 신발 안이 축축해져서 곰팡이가 번식할 위험이 있어요. 여러 신발을 자주 바꿔 신는 게 좋겠네요. 양말은 천연 섬유를 골라야겠고요. 해변이나 강가의 모래밭을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자극되어 좋지요.

3.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발사랑

집에선 더운물에 10분, 찬물에 10분씩 번갈아가며 발을 담그고 있으면 피로회복에 그만이에요. 발이 마르기 전에 묽은 소금이나 죽염으로 문지르면 발이 한결 깨끗해지지요.

그리고 나서 약 10분간 발을 높이 올려놓으면 더 좋아요. 잠잘 때도 발을 높게 하면 피로가 풀리고요. 좀더 신경을 쓰신다면, 간단하게 의자에 앉아서 발목 돌리기, 발가락 움직이기를 해보세요.

발지압법

발지압은 발바닥을 누르고, 비비고, 문지르고 주물러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신체기능이 촉진되고, 조금씩 자연치유력도 증대되지요. 또, 발에 쌓인 노폐물이 부서져 신장으로 운반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효과도 있어요. 1석2조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오늘부터 한 번 해볼까요?



< 오른발 >

< 왼발 >

발로 알아보는 건강 Q & A

Q: 발이 자주 부어요.

A: 피로하면 누구나 그렇지만, 일어나서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으면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예요.

Q: 발이 쉽게 저려서 쥐가 나요.

A: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군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면 심장병이나 고혈압을 조심하세요.

Q: 매일 다리를 꼬아요. 이것도 문제인가요?

A: 앉아서 다리를 자주 꼬는 것은 간장과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신호지요. 일반적으로 피로를 쉽게 느끼는 사람이 그래요. 간장이나 신장이 약해졌을 때 피로를 느끼기 쉽거든요. 또 다리를 꼬는 자세는 골반을 휘게 하거나 골반 내에 있는 다른 장기들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바르게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Q: 둘째, 셋째 발가락이 굳어있어요.

A: 뒤틀리거나 굳고 통증이 있으면 위장에 특별한 조심을 하세요.

Q: 발이 늘 차요.

A: 여성들은 냉증에 걸리기 쉽지요. 대체로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 발이 차요. 발이 따뜻해야 오래 산다는 건 일리있는 말입니다.

www.princeps.co.kr에서 발행했습니다

“이멜다와 3000구두”

—이 글의 내용과 신문 기사는 모조리 가져옵니다. 속지 마세요!!

—열 등—

“1933년, X월 X일, 오전 11시경 부경 공에 출생한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미국에 망명 요령, 그의 부인 이멜다도 함께.” (1933. 8. 15. “일보”)

“마르코스, 부경출생로 재관청에 차다, 역사의 실랑이 이루어지는가.” (1934. 6. 7. △, △신문)

“마르코스와 부인, 이멜다, 구두수집을, 일정한 양의 필레의 구두를 수집하고 있었을 이 드러나면서, 부경출생 필레로 특별 검사단이 수사에 나선다.” (1934. 7. 1. 주간요수)

검사: 이멜다씨, 구두가 모두 몇 켤레라고 하셨죠? 3000켤레 맞습니까?

이멜다: 정확히 3679켤레였죠. 지금은 세 켤레예요. 이젠 내 구두가 아니니까요.

검사: 3679켤레... 당신, 이게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알거나 해요? 무려 50억이란 말입니다!! 50억!!

이멜다: 경매 얘기는 하지 말아요. 내 소중한 구두들은 돈으로는 환산될 수 없는 거예요. 난 그 때, 몸이 3679조각으로 갈가리 찢겨지는 기분이었어요. 마르코스와 망명을 떠나던 날보다 더했어요.

검사: 반성의 빛은 전혀 없군요. 당신의 구두, 그 50억은 당신이 국민들에게 빼앗은 거란 말입니다. 당신의 사치와 허영을 생각해 봐요. 아직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이멜다: 오호, 사치? 허영? ...글쎄요. 구두 수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남들은 그저 밭에 밍그 구두면 되지만, 난 달라요. 난, 구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죠. 내겐 구두가 신다 버려질 소모품이 아니라, 내 삶이니까요. 그걸 사치와 허영이라고 한다면, 사치와 허영이겠죠. 어떻게 부르든 난 상관 없어요.

검사: 새로운 의미? 그런 생각부터가 당신이 호화와 사치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여성들은 밥 한 끼 먹으려고, 식구를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하죠. 그런 희생적이고 강인한 여성들을 생각해 봐요. 당신의 그런 얘기는 복에 겨운 소리일 뿐이에요.

이멜다: 그래서, 나에게 바라는 게 도대체 뭐죠? 내 삶을 집어 던지고, 다음 세상을 꿈꾸면서, 기계처럼 노예처럼 살라는 건가요? 그래요. 희생적이고 강인한 여성을 찬양하는 건 좋아요. 나도 그런 여자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난 그런 성격은 못 돼요. 난, 희생적이진 않죠. 행복해질 수 있는 데까지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죄인가요?

검사: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은 전혀 없군요. 당신은 퍼스트 레이디였어요... 여자로서 그 이상 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만족할 줄 알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답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하죠. 다른 나라 퍼스트 레이디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대거나,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사치와 허영, 그것뿐이었습니까?

이멜다: 난, 이전에는 미스 필리핀으로 이 나라를 대표했죠. 그러다가, 마르코스를 만났고 여전히 이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요? 이 나라를 대표해서 뭘 하라는 거죠? 책임? 뭘 어떻게 책임지죠?

난, 교양있는 귀부인도 아니고, 알뜰 살림꾼도 아니고, 백의의 천사도 아니에요. 시도는 해 봤지만, 사람들 만나고 돕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우아한 미소로 ‘퍼스트 레이디 포즈’를 취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조심하고 품위 있게 마르코스의 옆자리에 서서... 난 박제 같았어요. 그제 내 역할이었죠. 차라리 ‘미스 필리핀 포즈’를 지을 땐, 곧 내가 하고 싶던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마르코스 옆에선,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더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나의 행복을 추구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검사: 그래, 그래서, 하고 싶던 꿈이 구두 3000켤레였습니까?

이멜다: 3679켤레예요. 당신은... 그 구두들이 내게 어떤 행복을 주었는지 알게 된다면, 그 따위로 는 말 못해요.



검사: 퍼스트 레이디 생활의 부담이 우울증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사치를 해요? 그게 행복이요? 대외적인 활동에 능력이 안된다면, 남편 마르코스를 잘 내조하면서 그저 조용히 살았어야지.

이엘다: 무슨 권리로 내게 그런 말을 해요? 내조를 안한 걸 심판하겠다는 건가요? 우습군요. 그래요, 난, 내 남편 내조도 하지 않은 여자에요. 그는 내게 관심도 없었고 날 존중한 적도 없어요. 나도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았고요,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과 살면서 어떤 내조를 할 수 있나요?

검사: 피해자처럼 구는군. 동정심을 유발하려 들지 마세요!!!

이엘다: 난, 누구에게도 동정 받은 적 없어. 날 그 따위로 취급하려 들지 마!!



검사: ...좋아요. 마르코스와 관계는 사생활이니까 넘어가죠. 아까, 구두를 모을 땐, 행복했다고 했죠?

이엘다: 구두가 아니었다면 이미 죽어버렸을 지도 모르죠.

검사: 구두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이엘다: 우선, 수집하는 과정부터가 좋았어요. 옛날에, 가난했던 때에도 자주 구두방에 가서, 마치 살 것처럼 구두를 신어보곤 했어요. 가면, 깔끔한 정장의 젊은 남자가 내 발 밑에 얹전히 꿰어앉아 내 구두를 벗기고 새

구두를 신겨주죠. 그러면, 난 그를 내려다 보면서 이런 저런 상상을 해요. 내 밑에 있는 남자가 나의 노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가 내 치맛속을 들추어 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검사: 음란하기까지 하다니... 당신은 정말 퍼스트 레이디 자격이 없군요. 마르코스만 아니었다면, 창녀도 될 수 있었을 여자가, 당신은

이엘다: 흥, 웃기지 마. 퍼스트 레이디의 자격? 사실, 난 창녀나 다름없지. 맞아. 둘 다 몸을 파는 동물일 뿐이거든. 난 돈을 좀더 많이 받는데, 일종의 고급 창녀죠. 뭐, 많이 받았을 뿐이죠. 내 몸값이니까. 마르코스가 원할 때 그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재산 물려받을 아이들도 낳아주고,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도 하고... 더 많이 서비스하고, 더 많은 자유를 투자해서 돈을 받는 거지. 그

것 말고, 내가 창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요?

검사: 그렇게 받은 돈이 가난한 국민들의 삶이었죠. 그것으로 당신은 사치와 허영을 즐긴 거예요. 당신의 그 음란한 상상 하나에 50억의 돈이 들었다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그런 상상을 하나씩 행복해지던가요?

이엘다: 그게 다는 아니지. 그렇게 구두를 신고서, 난, 천천히 거울을 보고, 살짝 걸어봐요. 내게 구두를 신겨 준 젊은이가 속삭이죠,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정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럴 땐, 난 마치 내가 간절히 가고 싶던 그 곳에 첫 발을 담은 것처럼, 뭐라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분이 되어버리고, 흠린 것처럼 그 구두를...



검사: 잠깐! 간절히 가고 싶던 그 곳이라고 했습니까? 그 곳이 어디죠? 미국? 일본? 스위스? 돈을 그 곳에 숨겨 놓았나요?

이엘다: 당신은 상상력이 형편없군요. 그 곳은, 유치할 지 모르겠지만, 내 꿈이 이루어진 그런 곳이에요. 한 마디로 표현할 순 없지만, 난... 구두를 신은 내 모습을 보면, 스스로가 행복한 여성처럼 느껴져요.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일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는 집안일과 서로의 일을 함께 하고,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작고 소박한 집에 텃밭에서는 야채를 기르죠. 동료들,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어, 난 그 구두를 신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건전한 상상도 퍼스트 레이디 답지 않은 건가요?

검사: 하지만, 당신은 수집한 구두를 신지도 않았습니까. 그저 허영심을 채울 뿐이었다는 거죠.

이엘다: 나는 집에 가서도 그 구두를 바닥에 놓고서, 그저 바라봐요. 웃은 입에야 품이 나지만, 구두는 다르잖아요. 있는 그대로 완벽하죠. 신지는 않아요. 차마... 그 구두가 낡아지면 완벽함이 깨어지고, 그러면 이미 그것은 내가 바라던 그 구두가 아니거든요. 가끔 흠집이라도 나면 당장 고쳤고, 먼지가 있으면 닦아주고, 보관하는 방에 습기가 차진 않는지 살피면서... 그래요, 그 완벽함을 깨면, 나도 깨져버릴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시켰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짜릿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구두 수집이 시작된

거예요. 마치, 중독처럼.

검사: 중독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정신병으로 넘겨 발을 면하려는 건가요?

이엘다: 이봐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미치지 않으려고 그 구두를 산 거예요. 난 행복해지려고 한 것 뿐이에요.

검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후회나 반성의 여지는 없습니까?

이엘다: 글썽... 가끔, 구두가 없었으면 죽어버리거나 미쳐버렸을 테지만, 차라리 죽어버리거나 미쳐 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때로는 의심도 들었죠. 내가 지금껏 행복이라고 손 안에 넣은 것들은 다 가짜였으니까, 이것도 가짜는 아닐까... 그래도, 나에게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거라도 잡고 살아온 거, 그저 자랑스러워요.

검사: 좋습니다. 더 질문할 건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지요.

“이엘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나는 고급강녀였다.

마르코스를 유혹해 결혼에 성공. 아내 과거가 밝혀져 끊임없는 불화. 짙은 남자가 있는 가계만 골라 다니며 구두수집, 변태적인 상류 사회”

(1994. 7. 3 스포츠O.O)

“이엘다, 변변!!!

어두운 과거와 이후의 사기, 허영은 쉽게 인정하였으나, 오히려 자랑스러워하. 검사관, 무거운 형벌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언급 회피”

(1994. 7. 3 ♥♥스포츠)



섹시한 그녀의 다리 그려나...

길 위에서 희망 찾기

그래, 나는 용감하게,
또 꺾일지도 모를 그런 생각에 도달한다.
詩는 그나마 길이다.
아직 열리지 않은,
내가 뛰어 나가야 할 길이다.
아니 길 닦기이다.
내가 뛰어 나가 다른 길들과
만나야 할 길 닦기이다.
길을 만들며
길의 흔적을 남기며
이 길이 다른 누구의 길과 만나길 바라며,
이 길이 너무나 멀리
혼자 나가는 길이 아니길 바라며,
누군가 설설지 않을 만큼만
가까이 따라와주길 바라며.

—최승자, [詩 혹은 길 닦기] 전문

나의 짝은 어디에

동화 외전(外典)

패러디 동화 - 잘가라 신데렐라여...

길 위에서 희망을 중얼거리다



“나의 짝은 어디에”

-열쫂-

어느 짝신 한 짝이 있었습니다. 그 짝신은 짝이 없었습니다.

“어, 너는 짝이 없구나. 안 됐네.”

“흥, 난 꼼꼼하게 잘 짝여진 짝신이야. 화려한 한 짝이란 말야.”

친구들의 동정이나 비웃음에도 짝신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짝신을 신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거리를 누비지만, 짝신은 땃들에 혼자 남았습니다. 짝신은 안 그런 척 했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건 버려야지. 맞는 짝도 없고, 놔두면 구질구질해져...”

짝신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썩어지겠구나? 흑흑~ 아냐, 그럴 순 없어. 나도 내 짝을 찾아야겠어.”

짝신은 신발가게로 갔습니다.

“안녕~ 난 짝신이야. 내 짝을 찾고 있어.”

“난 이미 짝이 있어. 미안해.”

“나두 끼워주면 안 될까?”

“어머, 신발은 두 짝이 한 켤레야. 세 짝이라니... 망측해라.”

“안녕, 너 나랑 닮았구나. 내 짝이 넌가 봐.”

“아~ 넌 왼쪽이잖아. 나도 왼쪽이란 말야. 왼쪽은 오른쪽이랑 한 켤레야.”

“넌, 오른쪽 짝신 한 짝이구나. 드디어 내 짝을 찾았어.”

“어디 보자. 넌 240이군. 난 230이야. 우린 한 켤레가 아냐.”

짝신은 실의에 빠졌습니다.

“짝이 없는 짝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 난 이렇게 이쁘고 튼튼하지만, 무슨 소용이람. 내 삶은 의미가 없어.”

짝신이 막 시궁창에 뛰어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 예쁜 짝신 한 짝이 버려져 있네. 나에게 딱 맞겠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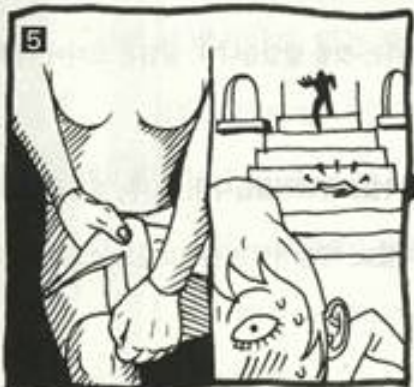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짝신은 처음으로 발에 신겨졌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버리겠지. 한 짝 밖에 없는 짝신은 불량품이야. 짝이 있어야 짝신이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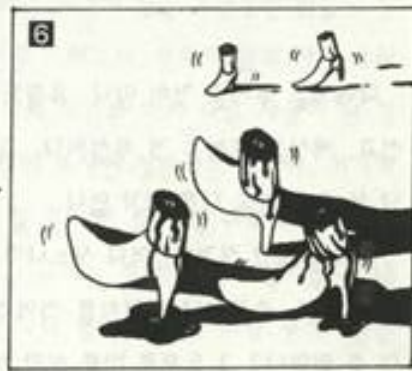
그러나 소녀는 짝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짝신을 신고 일어났을 때, 짝신은 그 소녀의 오른발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짝신은 드디어 신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짝신은 그 동안의 헛수고와 자포자기의 아픔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 짝신은 소녀의 발을 담고 어디나 다니면서 짝신의 역할을 다했고, 어떤 짝있는 짝신보다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

신데렐라



발간구두 아가씨



가야는 피로한 데까지 슬퍼는 슬퍼는 ... End

잘가라 신데렐라여

—패러디 동화—

—권집원 원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대요.
사바사바 아이 사바 얼마나 울었을까. 사바사바 아이 사바 친구백구십구년.

신데렐라는 자라서 유리구두 잃고요. 왕자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사바사바 아이 사바 정말로 행복했을까. 사바사바 아이 사바 친구백구십구년.

신데렐라는 늙어서 아름다움 잃고요. 왕자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사바사바 아이 사바 세상은 비정하구나. 사바사바 아이 사바 친구백구십구년.

나에게는 무서운 것이 많다. 유령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고, 괴물도 무섭고, 세상은 무서운 것 투성이다. 그 중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그 날 본 그 인간도 다를 바가 없다.

그치는 정말 질겼다. 어디 사느니며 꼬치꼬치 묻는 걸 따돌리느라 정말 온이 낫다. 수표에다 연락처를 적어주다니, 미/친/놈! 안 버린다고 간직할 줄 알았나? 그 돈으로 바로 신발 사 버린 걸 알면 약 좀 오를 거다. 어

우리 돈을 모어도 그림의 떡이었
는데. 기분이 좀 찝찝하지만 그
유리구두는 정말 잘 산 것 같다.
여직도 부듯하다. 내일 파티에 꼭
신고 가야지. 언니들이 보기 전에



잘 숨겨놔야겠군. 그나저나 그 인간, 음침
한 눈빛이며 느미한 미소하며, 밤에 만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흥! 내 신
세가 아무리 처량하다지만, 너 같은 놈은 트럭으로 가져다 줘도 '노'다,
'노'. 설마, 오늘 무도회에 그 인간이 나올 리는 없겠지? 이런 생각하면
망설여지긴 하지만, 새로 산 구두를 댈 수 없는. 어! 설렌다. 이게 얼
마만이야! 오늘은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웃을 때 눈가에 주
름이 살짝 잡히고 보조개가 귀여운 남자가 좋다. 그나저나 집안 일은 시
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으려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직도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쓸 수
가 없다. 내가 정말 그 남자를 죽인 걸까? 하지만, 가만이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어젯밤 무도회를 위하여 정말 오랫동안 힘들여 준
비에 왔는데. 한올 한올 정성들여 만든 드레스와, 뜻하지 않게 생긴 유리
구두까지, 새 옷과 새 신발을 신은 나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만 같았다. 완벽한 복장으로 무도회장에 도착한 것까지는 좋았다. 거기까
지는. 가자마자 그 인간과 마주치게 될 줄이야. 참 한번 쉼주고 때어버리
려 했는데, 끈질기게 쫓아와 괴롭히는 데에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내
가 미쳤지. 무슨 생각으로 서재까지 따라 들어갔을까? 그냥 무시하는건
데... 들어가자마자 자기 물건을 꺼내 놓는데는, 질려버리고 말았다. 흥.

나보고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하면 '변태세끼!' 하며 욕이라도 해주고 말았겠지만 그 때는 너무 무서워서 달아날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쫓아오지만 없었더라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던질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무서웠다. 저 인간으로부터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 그 구두가 그렇게 적중할 줄이야. 정확하게 그 놈의 머리에 가서 꽂힐 때에는, 당황스러운 가운데서도 사람 몸에 꽂힌 유리구두가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던진 거지만 정말 정확하게 맞았다는 이상한 만족감까지 들면서! 시간이 지나서야 사태가 파악이 되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서워서 가까이 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사람을 부를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 파티에는 엄마와 언니들과 있었을텐데, 들켰다면... 정신없이 그곳을 빠져나오느라 유리구두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내 구두인 걸 알면 어쩌지? 여우에게도 보여주진 않았지만, 내가 무도회에서 신고 있던 걸 본 사람들이 있었을텐데... 남은 구두 한 짝은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인생은 왜 맨날 꼬이기만 하는 걸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죽고만 싶다.

심부름하러 시내에 나갔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다. 왕자 살해사건이 신문마다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벽마다 연상수배 포스터가 도배되어 있고, 심지어 유리구두 얘기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어쩌지? 그 구두 주인이 나인 게 밝혀지면... 그 남자가 바로 왕자일 줄이야. 그런 줄 알았으면 잘 해주는 건데. 잡이면 죽겠구나. 이 젊은 나이에 살인자의 이름으로 죽어야 하는 걸까? 나는 단지...

며칠째 수사에 진전이 없어 가기로 방문하며 구두의 주인을 찾고 있

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집에도 올텐데... 평소 날 고까워하던 언니들은 분명 나에게 그 유리구두를 신겨보지 못해서 안달일 거다. 다락청소라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로 숨지? 어디로?



“*시 **동 신모양, 왕자 살해 용의자로 체포되다. 살해 현장에 있던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자 매우 불안해하는 신모양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형사들이 가택을 수사한 결과, 다락방에서 나머지 구두 한 짝을 찾아냈다고 이 소식을 접한 한 이웃은 평소 안전하고 집에서 잘 나가지도 않던 신모양이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는 반응. 그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평소 그녀를 구박하던 그녀의 양모와 새언니들의 음모라고 주장하기도. 그녀는 내일 정오 광장에서 공개재판을 받을 예정이나, 유죄가 확실시 됨. 죄질상 유죄가 확정되면 교수형을 면하기 어려울 듯.”

판결이 있기 전날 밤, 차가운 독방에서 잠자던 신데렐라는 기나긴 꿈을 꾸었다.

무도회 전날 밤 어디선가 나타난 요술할머니가 그녀에게 멋진 드레스와 마자, 시종까지 선물해 주었다. 무도회장에서는 신나는 왈츠가 울려나오는 가운데 화려한 차림의 남녀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 앞에 나타난 왕자는 원칠한 키에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멋진 남자였다. 평소 그녀가 꿈꾸어 왔던! 왕자와의 춤은 황홀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출 수만 있다면...

그러나 마법은 12시까지였다. 왕자를 멀리하고 급하게 무도회장을 빠져 나오던 그녀는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장면은 다시 바뀌어, 그녀의 작은 발에 왕자가 잃어버린 유리구두를 신겨 주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왕자의 사랑어린 눈빛. 신데렐라가 하얀 웨딩드레스에 유리구두를 신고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다.

사명대 앞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신데렐라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리 구두를 한 번만 신어보고 싶다고 부탁했다. 재투성이의 낡은 옷에 수척해진 몸의 신데렐라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고 뒷축이 없어진(여지도 왕자의 머리에 꽂혀 있다) 유리구두를 신었다. 그녀의 참담한 마지막 모습은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제 끔찍한 유리구두 살해사건 대신, 그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누군가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데렐라와 유리구두'라는 동화가 많은 소녀들의 꿈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카야렌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파문여기만 했다. '가만히 앉아서 왕자님이 나타나기를 언제 기다리고 있지? 바보같이 넘놓고 있다'는 왕자님은 고사하고 술무령 운전에서 내 인생은 끝나고 말거야.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그녀는 멋지고, 능력있는 여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카야렌은 춤추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세계적 발레리나 카야렌, 그녀의 환상적인 춤을 보러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다' 언젠가 신문마다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될 날을 꿈꾸며 그녀는 매일 매일 열심이 연습을 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열심이 해도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카야렌은 매일 저녁 엄마에게 짜증을 냈다. '나도 일류 학원 가서 배웠으면 벌써 성공했을거야!' '남들은

비싼 발레 슈즈에 화려한 발레복을 몇 벌씩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야! 다 떨어진 하얀색 발레슈즈는 이제 지겨워!' '카야렌의 무념을 들을 때마다,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우는 딸을 볼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살림에 남들처럼 딸을 뒷받침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카야렌의 어머니는 큰맘을 먹고 시내에 나갔다.



'세계적인 구두 디자이너 신나라 양, 그녀가 만든 구두에는 마법이 있다.'

'신나라 양은 그녀가 마음에 드는 손님에게만 구두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유명.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녀를 찾아갔지만, 구두를 얻을 수 있었던 행운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함.'

엄마가 찾아간 곳은 다름아니라 그 유명한 신나라 구두 디자이너였다. '불쌍한 제 딸에게 멋진 발레 슈즈를 선물해 주고 싶은데...' 디자이너는 카야렌의 어머니를 한참동안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빨간색 무용 구두를 꺼내 왔다. '왠지 따님에게 이 구두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이 구두는 제가 오래 전에 만들어 놓고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구두입니다. 아주 특별한 구두이지만, 조심하세요. 이 구두가 가진 힘은 행복과 명예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구두 주인을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따님이 현명한 사람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 밤 빨간색 무용 구두를 선물 받은 카야렌은 너무도 기뻐했다. 빨간

구두를 바라보기만 해도 반해버릴 것만 같았다. 빨간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서 보았다. 왠지 특별해진 느낌이 들었다. 발을 좌우로 움직여 보았다. 왠지 몸이 가벼워진 듯했다. 카아렌은 그날 저녁 밤새도록 거울 앞에서 혼자 춤을 추었다.

‘빨간 구두를 신은 프리마돈나 탄생!’

‘역사에 길이 남을 세계적 발레리나 혜성처럼 나타난다’

‘빨간 신의 카아렌, 어제 역시 환상의 춤을 선보인다’

‘완벽해요! 그녀의 춤을 보고 있노라면 황홀경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행복했다. 행복행복행복...

그러나, 행복도 잠깐, 카아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구두가 없어지면?’

‘누군가 구두의 비밀을 알게 되면 끝장이다!’

카아렌은 구두를 벗을 수가 없었다. 밤에도 그녀는 구두를 안고 잤다.

밤마다 카아렌은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 그녀는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고 있었다. 꿈속에서도 그녀의 춤은 완벽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녀는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다. 눈이 감기고, 팔다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았다. 잠시라도 쉬고 싶었지만, 쉴 수가 없었다. 발이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소리쳐 보어도, 모두들 그저 웃기만 할 뿐,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녀는 춤을 추며 마을을 벗어나 산을 넘고 개천을 넘었다. 옷이 찢어지고 나뭇가지에 살이 걸렸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목을 자르는 망나니가

춤추는 그녀의 발목을 내리치는 장면

이었다. 잘려진 발은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며 어디론가 사라져

갔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난 카아렌. 이불이 땀으로 음뻑 젖어 있었다.

불안이 커질수록 빨간 구두에 대한 집착은 커져만 갔다. 이제 그녀는 아무도 그녀의 신발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을 경계했다.

카아렌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춤을 출 때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사실, 이제는 자신이 정말 춤을 추고 싶어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 과연 내가 꿈꾸던 성공이란 이런 것이었을까? ’ 갑자기 의구심이 든 그녀는 구두의 제작자를 만났다. 신나라왕은 카아렌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말했다.

“빨간 구두가 당신에게 힘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그 힘을 너무 과신하면서 당신은 불행해졌어요. 이제 다시 당신의 힘으로 일어설 때인 것 같군요. 그 구두를 던져버리세요.”

카아렌은 신나라의 말을 따를 수 없었다. 그 구두는 이제 그녀의 인생이기도 했다. 그렇게 쉽게 구두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구두에 매달려 이전 무대 위에 오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카아렌은 빨간 구두를 산 후 처음으로 그 구두를 신지 않은 채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카아렌이 아닌 수척하고 광기가 흐르는 여인이 서 있었다. ‘빨간 구두가 없으면 다시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계속 빨간 신에 매달리다가는 난 더 망가져 좋아하는 춤조차 출

수 없을 거야.

그녀는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구두가 든 가방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올라오자 순간 불안이 밀려왔다. 그녀는 가까운 곳에 놓여 있는 나뭇가지를 들어 불을 내리치려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카아렌은 불가에 털썩 주그려 앉았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히 고인 눈으로 타오르는 구두를 한없이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충추고 심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불가를 돌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카아렌의 얼굴은 눈물로 뒤덮였지만 입가에는 의미한 미소가 돌았다.



77

남자들의
혈압이 올라가는
여자이고 싶다!



남자들의
혈압이 올라가는
여자이고 싶다!



김성형외과
Dr. Kim's Aesthetic Plastic Clinic

전국여성주의자연대

길 위에서 희망을 증명거리다

기행도

그는 어디로 갔을까
너희 흘러가버린 기쁨이여
찾지 말라,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
이제 해가 지고 길 위의 기억은 흐려졌으니
공중엔 희고 둥그런 자국만 뚜렷하다
물들은 소리 없이 흐르다 굳고
어디선가 굴주린 구름들은 물려왔다
나무들은 그리고 황폐한 내부를 숨기기 위해
크고 넓은 이파리들을 가득 피워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돌아갈 수조차 없이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내려온 이 길
구름들은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눈을 감어도 보인다

어둠 속에서 증명거리다
나를 찾지 말라... 무책임한 탄식들이여
길 위에서 일생을 그려치고 있는 희망이여

오 후의 거리 한복판, 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 보면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들, 갑자기 섬뜩한 비현실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적이 있다.

나 혼자만 삶의 질서에서 이탈된 것 같은 느낌.

삶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다시 내 발걸, 구두코만을 보고 걷다
가 고개 들어 바라 본 하늘은 너무 푸르려 눈이 부시다. 이런 때엔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길 위에서 증명거리려 본다.

나는 어디로 가야하는 걸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머뭇거리리는 사이 내 어깨를 부딪히며 앞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불만어린 표정에 흠칫, 다
시 길을 걷는다. 나는 '길'을 좋아한다. 아주 어렸을 때는 기차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고 생각했었다. 누구는 그래서 기관사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기차길의 선
로에 서서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미지의 '먼' 곳에 대한 설레임을 가
졌던 것 같다.

기차는 선로 위를 따라서 달린다. 기차는 선로가 끊어진 곳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온
하철도999'가 아니다. 궤도를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이, 가는 길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답답
하게 느껴졌을때 나는 그 기관사가 부럽지 않았다.

이탈한 자가 문득

김중석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꼬리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못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정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 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감감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동, 찰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차들이 무섭게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다. 그들의 속도를 멈추게 하고 싶다. 땀발로 뛰놀고 싶다. 흙과 공기의 감촉을 맨살로 느끼고 싶다. 내 안의 정념들이 나를 충동질할 때 인도 한 편에 자리 잡은 간이 구두 수선소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낡고 오래된 헌 구두를 고쳐서 다시 신는다는 사실이 무슨 대단한 발견인양 까닭없이 흐뭇해졌다.

구두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누군가 말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매우 낡은 구두를 신고 있으면 나는 그를 좋아할 마음의 자세를 갖춘다. 그 구두가 걸어다녔을 길들을 생각하고, 오랫동안 발과 구두가 살갑게 나누었을 정을 생각하고, 벗어놓은 구두가 그 사람인양 찰흔에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구두는 삶의 이력서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두는 오래 신어서 내 발에 익숙한 낡은 구두라고 나는 생각한다. 걷고 뛰는 것이 고문과 같은 하이힐을 신은 날의 오후 내내 나는 발끝으로 내 존재의 무게를 처절하게 느껴야 했다. 길을 걷는 즐거움을 빼앗는 구두들이 유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기 위해서가 아니라 벗기 위해, 벗어놓여진 모양으로 뒹내라고 만들어진 구두는 구두가 아니고 그런 구두는 낡아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구두에게 영광된 일인가라고 내 구두에게 속삭였다.

땅바닥과 구두코를 번갈아 바라보며 걸으면서 '길 위에서 일생을 그르치고 있는 희망'에 대해 중얼거렸다.

“지상을 더없이 사랑하게 만드는 구두
지상을 떠날 때 해를 향해 날아가는 구두
간인하도록 아름다운
내 희망 한결레!”

달나라 딸세포탐방

여우자리

이번 호의 여우자리 코너에 어떤 것을 소개하면 좋을까를 고심하던 끝에 '달나라 딸세포'라는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웹진을 택했어. 왜냐면 여학생들도 재밌고 가 보고 싶은 사이트가 있으면 인터넷을 보다 쉽게 흥미를 가지고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내 나름의 의도라면 의도야. 정말 쉽게 설명해 줄게. 그러면 달나라로 여행을 떠나 보자! 재밌겠지? 긴장을 풀고... 진짜 간다~~~

"달나라 딸세포" 찾아가기

1. yahoo.co.kr을 입력한 후 야후홈면이 뜨면, 검색어 입력칸에 "달나라 딸세포"를 입력한다.
2. <http://dalara.jinbo.net>을 바로 입력한다. (이게 더 빨라)

나는 처음에 '달나라 딸세포'의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1번 방법을 선택하였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달나라 딸세포' (이하 달딸) 사이트로의 접속에 성공하면 하얀 바탕화면에 조그마한 직사각형 하나만이 덩그러니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안에는 한 여자가 컴퓨터를 보며 비스듬히 서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담배를 피고 있는 머리 긴 여성이 보이는가? 보인다면 그 옆의 공간에 써 있는 "Alice in cyberspace"를 클릭해 보라. 그와 동시에 당신은 달딸 5호의 목차 화면을 눈 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다음엔 목차를 보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우스로 살짝 클릭! 해 주기만 하면 된다. 코너명은 분홍색의 대괄호 안에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 코너의 이번주 주제가 나와 있다.



자 그러면 눈을 조금 밀어서 내려 보자.

[게시판 | 링크모임 | 만든 사람들 | 웹마스터 | 파워호보기] 가 보인다.

게시판

게시판에는 달딸 사이트 방문 후 달딸에 관한 느낌이나 편집자에게 묻고 싶은 얘기들, 그 밖에 편집자들의 수다들이 대부분이다. 보통 통신 동호회의 자유게시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듯 하다.

링크모임

목차화면에서 아래쪽에 "링크모임"을 클릭하면, 여성단체 및 여성모임, 여성관련 홈페이지, 여성관련 링크사이트, 페미니즘 매거진, 추천 웹진 등이 각각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나와 있다. 그래서 여성에 관한 정보를 찾을 때에도 일단 달나라 딸세포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바로 링크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사이트이다.

만든 사람들

이 링크로 들어가는 순간 웬만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사람은 당황하게 된다. 난데없이

“여해그림”이라고 쓰여진 네모반듯한 그림 비스무리한 게 중앙에 딱하니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잉? 난 만든 사람들 리스트가 나와 있는 줄 알고 보러 온 건데...

자 조금만 마음을 안정시켜 보자. 마치 꼬마아이가 이리 저리 낙서해 놓은 것 같은 단순한 그림같이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의미가 조용히 전해온다.

앵? 그래도 모르겠대구? 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자 그렇다면 조그만 그림들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봐. 그림 그 그림이 뭘 나타내 주는 지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뜰거라구. 안내를 보구 가고 싶은 곳을 살짝 클릭하는거야.

어, 잊어버릴 뻔 했는데 처음에 ‘여해그림’이 뜬 걸 보구서 당황한 사람들은 뭐야 여해그림이라는 게? 하고 생각했을꺼야. 그치? 그림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클릭! 해 보라구. ‘여해그림’이 핀지 설명되어 있을 테니 말이야.

웹마스터

이걸 클릭하면 이상한 화면이 나타나지? 당황은 하지마. 달팔 편집부 앞으로 메일을 보내는 거니까. 게시판에 올려도 좋지만, 게시판에 올려서 여럿이 같이 보기에는 좀 그런 내용 있잖아. 왜. 그럴 때 쓰기에 아주 편리하지.

과월호 보기

핀지 알겠지? 내 생각엔 ‘지나갈 과(過)’자 같아. (아마 맞을거야. 그림 문제 하나 뭘 자는 한자로 뭘까요? ‘月’이라구? 맞았어! 응... 꽤 똑똑한걸? 그림 이 기세로 계속 알아보자구.) 여기를 클릭하면 달팔 0호부터 4호까지의 표지(?)가 나와있어. 만약 니가 3호를 보고 싶으면..... 알지? 3호에 마우스를 갖다대고 클릭! 하면 돼.

달나라말세포가 탄생되기까지

달팔은 98년 7월 야후 코리아에서 탄생했대. 원래는 편집진들이 종이 잡지보다 돈이 덜 들 줄 알고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다음은 0호에 실린 편집진들의 이야기 중에서 약간 발췌한 건데 그들 나름의 의식과 고충을 엿볼 수 있어. 한번 읽어봐. 어렵지 않으니깐 겁내지 말구.

“우리 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다 치고라도 차라리 대안이 부러운 정도였다.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우리들의 깃발을 꽂고 우리 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야후 코리아에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몇 개 안 되는 사이트들을 보면서 여성 운동과 관련된 사이트를 디자인했다는 남성들에게 바쳐지는 찬사를 보면서 서투르지만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 우리들은 웹진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결심해 버렸다.”

뭔가 느껴지는게 있어? 그리고 ‘달나라로의 여행’ 어땠어? 재밌었지? 컴퓨터 접속 후 실제 인터넷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니었대도 좋아. 이거 다 읽고라도 달나라 말세포 꼭 가봐. 가서 읽고 편집자들에게 충고해주고 싶은 거 있음 메일도 보내고, 게시판에 글도 한번 올려보라구! 그리고 그거 알아? 이 땅의 딸들을 대상으로 만든 잡지를 남자들이 더 많이 읽는데, 혹시 여자들이 인터넷을 못 써서 이제껏 못 갔다면, 내가 설명한 대로만 따라하면 되니까 꼭 가봐~~

난 개인적으로 글들의 글자크기가 너무 작은 게 불만이었다. 그리고 재밌다고 너무 오래 보면 눈 아프니까 가끔 쉬어가며 읽도록! **7월호**

if you are free...

ANTI-MISS KOREA FESTIVAL

'미스코리아의 달'이라는 5월에 미스코리아 대회보다 훨씬 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바로 'ANTI-MISS KOREA FESTIVAL'. 'ANTI'라는 단어에 덧붙여진 부정적 이미지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 행사를 누가누가 못생겼나를 겨루는 대회로 오해하기도 한다.

구구절절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오해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오해하시길...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너무너무 궁금한 사람들만 모이시라... 행사 준비자 겸 참가자였던 김영란씨의 눈을 빌어 이 행사를 살짝 들여다보자.

● 2:30 오늘의 책 지하... 김영란씨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얼마 전쯤인가?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그녀를 처음으로 보았다. 무슨 일이든 활기차게 한다는 그녀, 아주 잘 노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척 기대가 된다.

● 3:00 김영란씨 등장. 두서없는 질문들에 청산유수로 말을 이어가는 그녀. 역시 나의 짐작은 빗나가지 않았다.

1. ANTI-MISS KOREA FESTIVAL의 성공에 대해서

"이번 행사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사회적 흐름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획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행사 사전 준비를 위해 무작위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한 젊은 아기 엄마와의 인터뷰 중에는 "아기가 참 예쁘네요. 나중에 미스코리아 대회에 내보낼 거예요?"라고 말을 건넸다가 "나중에 좀더 개성이 증시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굳이 그 대회에 내보낼 이유는 없다"는 대답에 질문을 던진 자신이 무색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동했다고...

2. ANTI-MISS KOREA FESTIVAL

진행에 참여한 사람으로써의 자평

"여성들 스스로가 판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행사는 순서를 매기고 경쟁을 조장하는 '선발 대회'가 아니라 다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이다. 획일화된 미의 기준(이것조차도 늘 바뀐다)에 의해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개성들이 존중되는 장이다.

물론 언제나 좋을 수는 없는 법. 참여자들의 개성이 너무 강한 덕분에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기존의 미스코리아 대회처럼 심사 위원이나 상을 존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첨예해서 급기야는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영란씨는 "생각이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이 행사를 만드는데 함께 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이 행사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if you are free...

3. ANTI-MISS KOREA FESTIVAL. 어떻게 진행되었나?

예초에 이 행사는 이프가 발행한 단행본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로 기획되었다. 일단 행사가 결정되고 통신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가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판이 커졌다고... 참가자는 10세 어린이부터 89세 할머니, 장애인, 남성, 개인 또는 단체로 다양하다. 사실 한달여 간의 준비기간 동안 MT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획자와 참가자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와 참가자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본 행사는 참가자들의 개성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무대였다. 각자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연주, 퍼포먼스, 패션쇼 등-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었다.

김영란씨는 '인간의 몸을 억압하는

모든 옷은 물러가라'는 컨셉으로 한 패션쇼에 참가했는데, 여성의 몸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규정지어버리는 웨딩드레스와 결혼문화에 대해 대안적인 형태의 이성애자의 결혼의복, 동성커플의 의상, 공동체의 상을 선보였다. 또한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여성스러움'만을 강조한 직업복에 대한 비판으로 대안적인 옷을 고안해서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모든 과정들은 기획부터 의상준비, 공연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행사의 마지막은 모든 참여자, 폭파위원, 관객들이 무대에 올라가 함께 춤을 추면서 즐겁게 한데 어우러지는 장이었다. 이러한 열기는 뒤풀이로 이어져 정말 '축제'가 되었다고...

4. ANTI-MISS KOREA FESTIVAL. 앞으로도 계속 열릴까?

"미스코리아 대회가 존속하는 한 이 행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행사가 정착됨에 따라 대안문화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미스코리아 대회에 국한된 반대 움직임으로 축소될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미스코리아 대회는... 아마도 그와 같은 미

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과 같이 거국적인 행사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상으로 자리매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NTI-MISS KOREA FESTIVAL은 현재 미스코리아 대회가 갖는 터무니없는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김영란씨는 이미 내년을 위하여 제즈댄스를 배우고 있다고...

● 4:00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Anti-Miss Korea Festival은 여성들이 자신의 정치성을 맘껏 드러낸 장이었다. 그로 인해 더욱 즐거웠던게 아닐까? 다음에는 이러한 행사가 더 크게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함께 뒤풀이 장소로 길을 종종.



김영란
페미니스트 자넬 # 출판영업 팀장.

if you are free...

자치단체로 살아남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자치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자치단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에 '자치'란 말은 제도화된 것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들어오는 '자급자족'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들은 자치단체니까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하잖아. 살아남으려면 끊임된 그 무엇이 되어야! 제도화된 것이 곧 법이니, 당신을 예사 실 무서워할 뉘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제도화 되는 것이다. 아직도 당신이 자치를 말한다면 당신은 순박한 이상주의자이거나, 제도 만에 퍼질려 알아 입만 나눌대는 몽상가이다."

그러나,

혼수는 필요 없다! 대 이상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의 배부름은 몸장 속에 들어있는 가진 자의 모반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자치'로 살아남을 것이다.

-다시-

책을 하나 내는 데에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줄 몰랐다.

이 많은 과정에 속속들이 나의 의견을 피력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선 필필이 되어 하고, 그 다음엔 목숨까지 써야 한다.

하지만 땀나땀나해도 확실히 돌아가는 머리가 정상이다.

엄청난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의 결과물들은 보잘 것 없지만 이번엔 이 정도로 만족하겠다.

다음호를 기대하시라.

하느님 저에게 확실히마와 막강체력을 주세요!

함께 2생한 두입술인들 모두 사랑해~

-240-

메미니즘의 미덕 중 하나는 개인과 일상으로부터 내려온 정치성의 확장이다.

그러나 그 곳은 여전히 망개 속에 싸여 있다.

일상 속에서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2호를 준비하면서 해어날 길 없는 노파실에 허덕거렸다.

그리고 생각컨대, 노파실에서 우레나오는 우레와 준비실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에서 영유화된다.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진행-

어제는 비답지도 않은 시시한 내가 내렸다. 그레놀 2선 하늘은 그보다 더 실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휘젓고 있었다. 퍼뿌들——; 무엇인가에 빠져들기 위해, 또는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벼들거려 보지만 날뻐 탕인지 대 휘날리기만 했다. 그런 나를 보고 한 선배 말... "요요를 해봐라구!" 애 그리 유치하냐며 난 그 선배에게 편지를 주었지만 집에 돌아와보니 동생도 요요를 돌리고 있었다. 요요를 돌리고 있는 순간 난 순전히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땀그르르... 그 요요는 어두운 하늘을 싹배비고 있었다. 모든 것에 그렇게 쉽게 '중독'되어 이제 '중독'되어 지겨워져 버린 것들을 뺄아들리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피라-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다' 하는 나의 주장에 외국인 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

나는 서울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이 건조한 느낌의 도시를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제한길고, 한강, 노을, 거리, 하늘, 빌딩 숲, 그 거리에 사이에 적혀 어울리지 않는 옥수수장수 아저씨, 그리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미치광이 같은 도시 속에 사할때.

남자로 살아본 적은 없다. 그러나 난 딸을 낳고 싶다. 그리고 두입술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

-불-

을... 짝님이 "누구야, 그럽다."는 말은 배구 그동안 느꼈던 걸 버리고 말했지만, 내 느낌은 그마음이 가장 크다.

'운동'이라는 말이 거창하지만, 발창이 있고 움직임이 있으니, 운동일 것이다. 이 책을 펴내는 것도 운동이고, 내가 지금 이러는 것도 하나의 운동인 셈이다. (모지한 거 나도 안다. 비웃지 마라.)

날 '대중 아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이다. "어, (그 나이에) 뭔가 하는구나." 아니면, "(어) 흠) 너, 그럴 줄 알았다." 둘 다 나와 함께 하려고는 안 한다. 무언가 말해 보려고 해도, "아, 너 '두입술'이지?"하며 도장찍어 버린다. 나는 뭐롭다.

모든 운동이라는 게 그렇고 신다는 것부터가 그렇지만, 때때로,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진다. 바락바락 잡고 있는 이것이 그것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게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먹먹하고 현실하기도 하다. 나는 미용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지만, 그 '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나의 몸은 내가 먹은 밥이며,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일러준 것들에서 시작되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사랑한 사람들로 짜여져 있다. 그것을 먹은 것은 '나' 자신이지만 말이다. ...내게 먹혀 준 밥과 딸과 사람들이 한입이 2밥이다.

-열풍-

모두에게 글쓰기와 함께 글이 조금씩 익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골라내고 행복해
져라. 모두 수고 많았고, 특히 편집장 다씨가 열심히 뛰어다녔다. 뒤편 박수 짝짝. 뽀뽀함과 부끄러움이
교차한다.

-마아-

선고대지 하오리개?

1. 나는 기쁘고 얌얌 부와 명예를 누렸던 행복한 편집장이었다.
 2. 나는 사기꾼이었다. "후배들도 많아졌고, 선배들도 그대로 있으니 별로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많이 도와줄게..." 지금의 편집장은, 온갖 잡언설과 무언의 압력들에 넘어갔던 자신을 두고두고 후회하
고 있을 것이다. 다시아, 나 너무 미안하지 마...
 3. 왼쪽 발은 달고, 왼쪽 발은 빼놓고 엉거주춤 도망갈 준비.
'아이들도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해!' -반악한 변명.
 4. 아이디어만 있고 고민이 없던 기획자였다. 시간이 촉박했고, 뒤적 뒤적 고민들이 매우 열악했으며, 두
입술의 새 식구들의 격음이 필요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열거하지 못할 것도 아니나, 인정할 것은 인정
해야겠다. 더 공부하고 더 고민해야 한다. 그것도 많이...
- 이번 호를 계기로 인기 거품은 확 줄 터이니, 흥분해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잘해 볼 수 있을 듯 하
다. 독자 눈치 보기 시작하면, 잡지가 망하는 것 같다.

-나, 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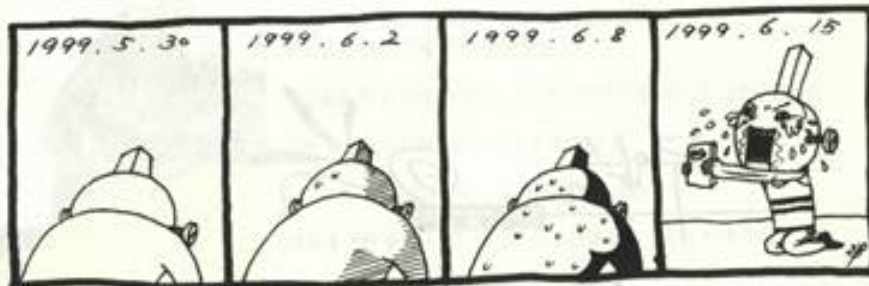
요즘 도하하면 신대령화가 넘쳐난다.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예쁘고, 능력도 있는...
있잖아 살기가 격박한 세상이라 어찌하면 나 또한 그런 신대령화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시대의 신대령화는 매력적이다.
조내는 자기 일에 미칠 줄 안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도 남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도 모른다.
그 기대들이 상처가 되어 각자 가슴에 꽂혀있는 아픈 상처.
우리는 결국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한다. -

-피소-

생들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발에 또 물집이 잡혔다. 이번 호의 손재가 구두이다보니 아예 발에 잡힌 물
집 하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한 달 가량을 구두에 골혀 살았다. 눈에 보이는 것도 구두, 귀에 들
리는 것도 구두일 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구두를 찾아 헤메었다. 그래서 나온 것은? 구두 뒤편 여성과

여성들이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답답함이다. 언제나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
을까... 하지만 이번 호 역시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 답답함을 일부분을 파헤칠 것 같다. 음...
잡지하는 매체를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너무 일을 몰랐다. 언니(들)! 애 많이 태워서 미안해요. 다음부
터는 얇은 실수들은 좀 줄였지요...!!

-프시온-



-태영-

두입술

1999. 여름 제1호

● **편집자** : 최은경(인문학부98)

곽태영(정외97)

김유영(인문학부97)

박효원(사회복지97)

이여주(인문학부97)

전양숙(인문학부97)

이현옥(정외96)

김혜정(정외95)

피소현(정외95)

정승화(응통93)

박진철(화공92)

● **편집자** : 이현옥

● **편집자** : 두입술 편집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120-749)

전화 / 015-8606-0910 (편집장)

통신ID / 두입술(나우누리)

통신방 / go twolips (참세상)

● **편집자** : 뿌리기획(2263-2311)

● **발행일** : 1999년 6월 14일

● **후원** : 연세대학교 예산자치협의회(준)

연세대학교 여학생처

연세대학교 제11대 총학생회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뿌리기획 여러분들과
인쇄노동자 여러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제발...

두입술은 한 학기에 한 번 발행됩니다.

두입술을 읽고 성에 안 차시는 분,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통신 공간에서 두입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우누리 ID '두입술'이나, 참세상(go twolips)으로

내용에 관한 평이나, 의견, 두입술에 신고 싶은 글들을 보내 주세요.

또한 두입술의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

두입술이 계속 발간되기를 바라시는 분,

열악한 상황에서도 곳곳하게 버티고 있는 두입술에게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한 손가락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주저말고 후원에 주세요.

연락처 015-8606-0910 (이현옥)

계좌번호: 126-536307-02-001 한빛은행/ 피소현(두입술 편집위원회)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두입술에겐 큰 힘이 됩니다.



편집 디자인 전문회사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든 이 세상에 아직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은
양심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항상 정직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세상을 지켜갑니다.

뿌리기획

서울 중구 필동2가 128-11호
상전빌딩 302호 무)100-272
Tel. (02) 2263-2311, 2266-0669
Fax. (02) 2266-0669
관리인 H. roo@651
아이들 D. 02-3266

ssamzie

홍승혜, 유기적 기하학 'Enjoy ssamzie', print on canvas, 45X61cm, 1999.

옛날 옛적

국립한글박물관
기려원
기려원부속

“도심속에 자리한 옛날 시골 풍취의 멋”

매월은 아늑히 만 옛날—

우리의 맛이 그리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맛깔스런 솜씨도 생각이 납니다.

옛날옛적에서는 25년간 한국전통요리연구관을 고집해온 요리연구가 이선규(결혼음식전문점 기려원 원장)의 손길을 통해 바로 이런 그리움과 맛을 여러분께 전해주려 합니다.

아늑한 우리전통의 향토방과 고향스러운 분위기에서 귀한분, 정다운분, 그리움분들의 만남을 위해 저희 옛날옛적 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옛날옛적의 음식맛은 가정에서 손님맞이 하실때의 음식맛 그대로입니다.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옛날 옛적 반상

옛날반상/옛날 개장반상
7첩반상/월반상/임금님 수랏상

먹거리

■ 상차림: 계모임/회갑/고회연/생신/돌/백일/상견례/약혼식/친목회/직원회식/동창회 등 각종모임

● 옛날 옛적의 本家-家禮院을 소개합니다 ●

혼례일을 맞으시면 걱정마시고 우리 고유의 전통폐백과 이바지 음식만을 만들어온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사돈 어른께 흠이 없도록 정성들여 어머니의 마음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려원 상점 333-1525)

- 전통폐백과 이바지 음식
- 각종 맞춤백
- 출장연회 서비스
- 선물을 한과, 떡, 일한잔

옛날 옛적 예약 325-7666

단체손님 환영
관내반주까지

기려원 상담 333-1525



△아늑한 우리전통의 향토방과 고향스러운 실내 분위기의 옛날 옛적 전경(1, 2, 3층 각종 연회식 준비)



△1,2층:가족식 및 스무고개 모임



△3층:각종 연회 및 단체모임



서울시 서대문구 창문동 52-13 (현대백화점 옆)

공유지 영농 권역개발
현대증권
대표전화 02-700-0114, 080-011-0011
인터넷 주소: <http://www.stockmarket.co.kr>

국민투자신탁
현대투자신탁
고객상담실: 02-700-7000, 080-0234-114
인터넷 주소: <http://www.hbc.co.kr> // www.hcsl.com

※ 수익증권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 일으키는 펀드
내 가정 웃음주는 펀드



우리는 강했습니다.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이 모이고 모여 한국경제가 다시 서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강한 한국을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BUY KOREA 펀드
한국경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정경제를 더욱 살찌우는 일입니다.